

기본연구과제 2004-04

충청남도 지역구조 변화분석과 대응방안

조봉운 · 김정연

발 간 사

국가균형개발을 위한 3대 특별법이 통과되어 수도권 중심의 발전에서 지역의 균형발전으로 국가 정책이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충남지역의 현재 모습을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잠재력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역발전을 보다 합리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고민을 하고, 시급히 필요한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신행정수도특별법은 비록 위헌으로 국가정책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정부에서 밝히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는 현재까지보다 더 철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고, 필요한 기초연구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그 위에 다양한 지역발전정책을 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본 연구에 있어서 여러 한계점이 있지만, 이 연구를 토대로 지역을 보다 객관적이고 세밀하게 고찰하는 연구가 지속되어 다양한 지역발전정책이 발굴되고, 정책 추진에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수행한 조봉운 책임연구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04년 10월 31일

원 장 김 용 웅

차 례

제 1 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2. 선행연구 검토	2
3. 연구범위와 방법	3
1) 연구범위	3
2) 연구방법	4

제 2 장 충청남도 지역구조 분석

1. 인구	7
1) 인구의 성장	7
2) 인구구조	8
3) 인구분포와 인구동태	9
4) 충남의 인구변화 특성	10
2. 도시	11
1) 도시분포패턴	11
2) 도시순위	12
3) 삼각좌표에 의한 도시기능	14
4) 산업종사자수의 Z-score를 이용한 도시기능	15

3. 충남지역 계층구조	15
1) 이용자료 및 분석방법	15
2) 시군별 중심지 계층구조	16
3) 대전·충남의 중심지 계층구조	16
4. 지역간 상호작용	18
1) 버스 유동량	18
2) 통근통학 통행패턴	19
5. 지역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	23
1) 충청권 시·군단위의 지역분화	23
2) 충청남도 읍·면단위의 지역분화	23
3) 등질지역	28
4) 조건 유리 및 불리지역	32
5) 지역간 발전격차	32

제 3 장 충청남도 지역구조 변화 전망

1. 인구 및 도시체계 변화 전망	33
1) 신행정수도 건설의 따른 영향	33
2) 차별적인 지역변화 효과	34
3) 신행정수도 중심의 광역도시권 형성	34
4) 신행정수도 이전과 지역 발전과의 관계	35
5) 예상 문제점 : 공간적 분화(Spatial Divide)에 따른 지역내 성장 격차 심화	35
2. 지역경제의 변화 전망	40
3. 부정적 효과	42
4. 사회·문화적 변화	43
1) 사회적 측면	43
2) 문화적 측면	44
5.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 따른 변화	45
1)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접근성 강화	45
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46

제4장 합리적 지역구조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1. 신행정수도권의 도시네트워크체계 구축	49
1) 네트워크 도시체계 형성	49
2) 충청권 전역을 세계도시지역(Global City Region)화	51
3) 광역도시권 중심도시간 연계와 기능분담	52
2. 서해안권의 지역거점 개발	54
1) 서해안 단일거점도시 육성	54
2) 서해안 거점도시권 육성	55
3) 공공기관 유치와 혁신도시 건설	56
3. 내륙권의 역사·문화·관광 거점 및 벨트 구축	56
1) 농촌지역 활성화와 혁신의 거점으로서 소도읍 육성	56
2)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실버산업의 전략적 육성	58
3) 농수축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생산기반 확충	60
4. 고속도로 및 역사 주변지역 개발	61
1) IC 연결부의 개발 잠재력	61
2) 개발방향	62
3) 추진방안	62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63
2. 정책제언	64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65

참고문헌	67
------------	----

부록	69
----------	----

표 차 례

<표 1> 충남 시·군별 인구구조	9
<표 2> 수도권 전입자의 전 거주지별 비율	11
<표 3> 충남 도시인구순위 분포	13
<표 4> 대전·충남지역의 중심지 계층 변화(1981~2002년)	17
<표 5> 출발지 기준의 연도별 통행량(통근·통학) 1·2순위	19
<표 6> 2002년도 지역유형 구분을 위한 변수 특성	24
<표 7> KMO & Bartlett Test 결과	25
<표 8> 2002년 변수별 요인부하량	25
<표 9> 요인별 점수 1.0 이상인 지역	27
<표 10> 2002년 유형별 지역현황	30
<표 11>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33
<표 12> 지역별 인구변화 예상	37
<표 13> 충청권의 중심지체계 변화	38
<표 14>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중부권의 지역총생산 변화	40
<표 15>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41

그 립 차 례

<그림 1> 연평균 인구 증가율(1990년~2000년)	8
<그림 2> 충남의 인구분포(1995년)	10
<그림 3> 충남의 인구분포(2002년)	10
<그림 4> T자형 도시체계	12
<그림 5> 충남 도시순위분포 곡선	12
<그림 6> 충청지역 도시의 삼각도표 및 기능 분류	13
<그림 7> 충청지역 시외버스 유동	18
<그림 8> 충청권 통근·통학 인구이동의 공간패턴(2000년)	20
<그림 9> 충청권의 통근·통학 통행량 분포	21
<그림 10> 대전광역시 중심의 통행량 분포	22
<그림 11> 천안시 중심의 통행량 분포	22
<그림 12> 요인별 점수 분포	26
<그림 13> 충청권의 등질지역 구분	28
<그림 14> 2002년 군집분석에 의한 지역유형 분포	29
<그림 15> 시·군별 조건유리 불리지역	31
<그림 16> 충남지역의 읍·면별 발전격차(2002)	32
<그림 17> 2030년 충청권 인구분포 예측	36
<그림 18> 신행정수도로부터 시간거리(단위 : 분)	46
<그림 19> 지역낙후도와 직접영향권(좌우10km이내)	47
<그림 20> 도시체계	50
<그림 21> 충청권 공간개발의 구도	52
<그림 22> 연계네트워크 구축 예시도	55
<그림 23> 시·군별 교령화비율 현황	60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최근 서해안 및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와 더불어 경부고속철도 건설 등 교통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충남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당진~대전간 및 공주~서천간 고속도로가 건설 중에 있고, 호남고속철도 건설 등 향후 충남지역의 물리적 환경 및 지역간 상호작용 및 고속교통망 인접지역(특히, IC·고속철도역 주변지역)의 지역구조가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참여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3대 특별법(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新新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등)을 제정하였으며, 그 중 ‘新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해 新행정수도 건설¹⁾을 추진함에 따라, 이와 연계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신행정수도 연계 교통망 구축 등 충남지역에 자족적인 신도시가 형성되고, 주변 대도시(대전) 및 중도시(청주, 천안 등)와 관계속에서 지역의 발전구도가 재편될 것이다.

1)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강력하게 추진되던 신행정수도 건설이 법제정으로 추진되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지만, 충청권에서는 신행정수도의 계속 추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정부 발표를 감안하여 그대로 이하 신행정수도 건설이라고 표기한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최근 신활력지역 개발 등 충남지역을 대상으로 한 개발계획 수립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의 변화가 상당히 다양하게 이루어 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충남지역의 변화를 검토하여 지역의 개발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적인 지역분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충남지역의 SOC(고속도로, 고속철도 등) 확충, 신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간 이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개발계획 등에 대비한 방안 모색의 필요에 따라

첫째, 1995~2002년간 충남의 지역구조 변화를 도시계층구조, 지역간 상호작용, 지역특성의 변화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요인을 해석하고,

둘째, 신행정수도 · 고속도로 건설 등의 여건변화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며,

셋째,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합리적인 지역구조 형성을 위한 대응과제를 마련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지역구조를 분석한 연구는 인구, 사업체, 토지이용 등을 이용한 도시계층의 분석과, 도시 및 지역간 물류, 정보통신 및 인구의 통행패턴을 통한 상호작용의 분석을 통해 도시체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와 도시 및 지역별 인문 · 사회 · 물리적 특성 등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요인 및 군집분석을 통한 지역분화 및 유형화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연구 목적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혼합하여 이용되고 있다.

분석방법에 따른 구분이 곤란하여 연구 대상 및 목적에 따라 구분하면, 첫째, 서울대도시권(이희연 · 송종홍, 1995; 권용식, 1998; 이경기, 2000)과 광역권(서종국, 1997; 김영 · 고석남, 1998; 김영 · 하창현, 2000) 및 시 · 도지역(김정연, 1999) 등의 공간구조 또는 지역구조의 변화

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

이러한 도시체계에 관한 연구는 인구규모를 순위를 정하여 단일시점 또는 시계열적으로 비교하거나, 산업입지 및 도시적 토지이용을 이용하여 지역의 기능을 지수화하고, 그 서열을 비교하여 도시 또는 지역의 계층을 구분하며, 그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로 순위규모모형, Z-score, 기능지수법 등을 이용하고 있다.

둘째, 통근통학의 통행패턴(곽철홍 · 이전, 1997; 이외희, 1999; 김창현외, 2003) 및 기타 통행패턴(서종국, 1998; 구진권, 2000)을 분석하여 지역간 상호작용을 파악한 연구가 있다.

이러한 지역간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일상생활권의 파악을 위해 통근통학 통행량을, 경제권은 물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 횟수를, 지역간 산업구조적 측면으로 물류 및 버스유동량 등을 이용하여 주연계분석 및 변화량분석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간 상호작용의 증감, 공간적 확대 및 축소 등을 분석하여 지역의 세력권 등을 파악한다.

셋째, 전국을 대상으로 등급화하거나 통계분석(요인분석, 주성분분석, 군집분석 등)을 통해 지역의 유형구분(정우환, 1997; 박범조 · 고석찬, 1998; 정기환 등, 1999; 박시현 등, 2001)을 행하고, 그 지역특성을 도출한 연구가 있다.

이러한 지역유형화 관련 연구는 도시의 기능을 Z-score를 이용하여 등급으로 구분함으로써 해당기능의 특화정도를 파악하거나, 기능을 삼각좌표에 표시하여 인접한 지역들을 구분 및 유형화하거나, 지역의 다양한 변수를 통해 요인분석과 군집분석 등 통계분석을 통해 지역을 구분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3.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공간적 범위로는 충남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필요시, 대전과 충북까지도 확대하여 분석하며, 시간적 범위로는 1995년과 2002년(전국 또는 충청권 분석에서는 2000년)을 기준년도로 하고, 국토계획 및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한다.

내용적 범위로는 2장에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분석방법 및 연구의 틀을 선정하고, 3장에서는 실제 자료 수집을 통해 첫째, 인구 및 산업을 통한 도시계층구조를 분석하고, 둘째, 통근통학 및 버스운행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간 상호작용을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지역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요인분석 및 군집분석을 통해 지역의 특성 분석과 특성별 유형 분류를 통해 지역의 성격을 파악한다.

4장에서는 앞 장에서 분석한 내용에 주변 여건변화를 검토하여 그 영향에 따라 인구성장 및 도시체계의 변화와 지역간 상호작용의 변화 및 지역의 특성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전망하여보고, 5장에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충남지역에서 취해야 할 사항 즉, 대응과제를 도출한다.

6장 결론에서는 본연구의 내용을 종합정리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대응과제의 추진방안을 제안하고,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를 어떻게 추진해야 제시한다.

2) 연구방법

충남지역의 인구변화 및 도시계층구조 분석은 충남뿐만 아니라, 대전, 충북을 포함하여 시·군단위 또는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거시적인 도시규모, 분포, 기능 및 계층구조와 같은 지역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충남지역은 읍·면·洞부로 구분하여 인구, 사업체기초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기능지수법 등을 통하여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한다.

충남지역의 지역간 상호작용 분석은 통근통학 통행자료(인구센서스), 시외버스 운행자료 등을 이용하여 지역간 통행량을 기준으로 주연계분석 및 통행량비교를 통해 지역간 연계구조 등 상호작용 패턴을 파악하고, 시계열적으로 검토하여 그 변화를 분석한다. 상호작용은 시·군단위 이하의 자료가 없어 충청권(충남, 대전, 충북)의 분석 단위와 충남의 분석단위를 같게 하였다.

충남지역의 지역특성 및 유형구분은 충청권에 대해 시·군단위로 분석하고, 충남지역은 읍·면·洞부단위로 분석하여,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에서의 지역특성 및 유형이 어떻게 구분되고 유형화되는가를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충남지역의 여건변화 전망은 기존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을 수용·정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구조의 변화 방향을 정성적으로 전망하였다.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지역공간구조 형성을 위한 대응과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장기적인 충남지역에서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 및 발전잠재력을 고려하여 대응과제를 선정하였다.

제 2 장 충청남도 지역구조 분석

1.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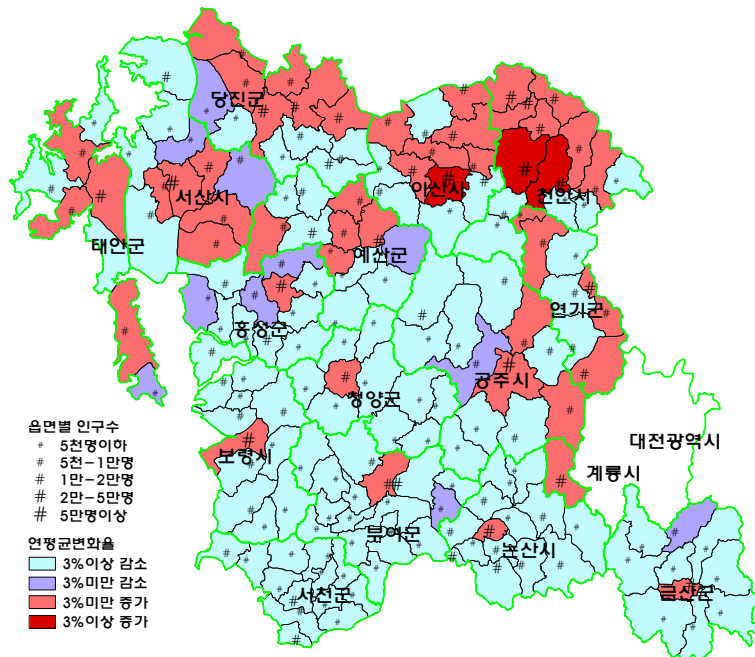
1) 인구의 성장

충남은 2000년 현재 185만명(충청권 468만명)으로 충청권의 39.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변화는 1990~1995년까지 연평균 2.58%씩 감소하다가, 1995년 이후에 교통의 발달 및 산업화에 의한 영향으로 연평균 0.87%씩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지역은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충남의 북동부지역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충남의 인구는 16만 9천명이 감소(1990~2000년, 연평균 변화율 -0.87%)하였으며, 충남의 연평균 변화율보다 낮은 지역은 서천(-3.3%), 금산(-3.1%), 청양(-2.8%), 보령(-2.5%), 논산(-2.2%)으로 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이고, 서산(-0.4%), 당진(-1.1%)은 인구감소가 비교적 적었다.

천안(3.3%), 아산(1.0%)은 인구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도권의 배후지역으로서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수도권의 개발억제 정책에 따라 산업이 산발적으로 이전하여 이와 관련된 인구가 계속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당진, 서산 등 충남의 북부지역은 1995년 이후 공업단지의 조성으로 인해 인구유입요인이 발생하여 감소폭이 적은 것이다.

〈그림 1〉 연평균 인구증가율(1995~2002)



2) 인구구조

충남의 인구구조를 보면, 0~14세의 유소년층 인구는 38만명으로 충남 총인구의 19.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장년층이 68.57%, 노년층이 11.75%를 차지하고 있다. 유소년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계룡으로 27.48%이며, 서천(14.84%)이 가장 낮다. 청장년층은 태안이 69.8%로 가장 높고, 청양이 65.68%로 가장 낮다. 반면, 노년층은 청양이 19.22%로 가장 높고, 계룡이 5.52%로 가장 낮다.

천안·계룡을 제외하고는 전지역이 65세이상 노령인구가 7%이상으로 노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특히,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은 노령인구 14%를 넘어 노령사회라고 한다.

충남전체의 성비(남자/여자)는 불균형이 완화되고 있으나, 20~24세의 성비가 1990년 1.53에서 2000년 1.31로 크게 완화된 반면, 25~34세의 성비는 증가하여 연령대별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금산, 아산, 보령지역이 남성비율이 매우 높은 불균형을, 계룡, 서천은 여성비율이 높은 불균형한 성비를 보이고 있다.

〈표 1〉 충남의 시·군별 인구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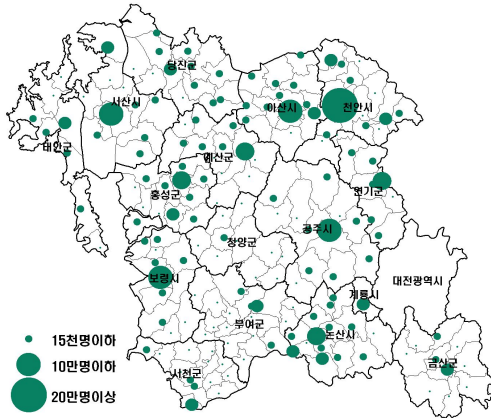
구분	유소년		청장년		노년인구		성비	합계
	인구수(명)	구성비(%)	인구수(명)	구성비(%)	인구수(명)	구성비(%)		
합계	377,347	19.67	1,315,339	68.57	225,451	11.75	1.011	1,918,137
천안시	106,528	24.63	298,405	68.99	27,601	6.38	1.017	432,534
공주시	24,138	18.02	92,295	68.89	17,545	13.10	1.007	133,978
보령시	20,871	17.94	81,116	69.74	14,319	12.31	1.025	116,306
아산시	39,676	21.28	128,562	68.95	18,231	9.78	1.026	186,469
서산시	32,058	21.36	101,907	67.89	16,151	10.76	1.019	150,116
논산시	24,827	17.70	96,153	68.54	19,307	13.76	1.002	140,287
계룡시	7,908	27.48	19,279	67.00	1,588	5.52	0.981	28,775
금산군	9,585	15.22	43,356	68.84	10,044	15.95	1.032	62,985
연기군	14,845	18.25	56,160	69.05	10,323	12.69	1.019	81,328
부여군	14,044	15.54	60,805	67.28	15,524	17.18	0.995	90,373
서천군	10,798	14.84	48,955	67.26	13,034	17.91	0.984	72,787
청양군	6,044	15.10	26,290	65.68	7,695	19.22	1.006	40,029
홍성군	16,045	17.15	63,699	68.09	13,814	14.77	0.995	93,558
예산군	16,173	16.13	69,057	68.86	15,059	15.02	1.001	100,289
태안군	11,068	16.31	47,376	69.80	9,434	13.90	1.008	67,878
당진군	22,739	18.88	81,924	68.02	15,782	13.10	1.009	120,445

자료: 통계청, <http://www.ns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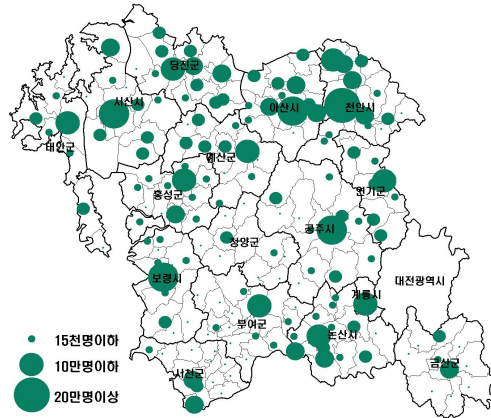
3) 인구분포와 인구동태

충남지역의 인구분포를 보면, 가장 두드러진 것이 천안, 아산, 당진 등 북부지역의 집중이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의 산업기능을 수용하여, 산업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시·군청소재지뿐만 아니라 주변 면지역까지도 함께 성장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장항선, 호남선 축을 따라 인구의 분포가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교통수단이 지역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청양, 부여, 서천, 금산 등 내륙지역은 시·군청소재지와 주변 읍면지역과의 인구격차가 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지역은 주로 산악지역으로 개발의 여건이 열악한 지역이다.

〈그림 2〉 충남의 인구분포(1995년)



〈그림 3〉 충남의 인구분포(2002년)



전국 인구이동은 40%에 달하며, 1990년보다는 줄었으며, 20대의 이동인구가 현저히 증가,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이 전문기술직일수록 이동이 많았으며, 이러한 인구이동의 주요 요인은, ①취업과 관련한 경제적 요인과 ②진학 또는 자녀의 교육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동하는 교육적 요인, 그리고 ③결혼이나 가족의 재결합을 목적으로 하는 가족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충청권 인구의 자연적 변화는 인구의 고령화로 조출생률(인구 천명당 출생자수)은 낮고, 조 사망률(인구 천명당 사망자수)은 높으며, 1995년 이후 충남의 북부와 북서부지역의 산업발전이 가시화되면서 전입인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이동이 많았는데, 이러한 인구이동의 흐름은 시도내의 이동이 시도간의 이동보다 높고, 장거리 이동보다는 단거리 이동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충남의 인구 변화 특성

(1) 충남의 지역간 양극적인 인구변화 진행

충청남도 인구는 1,930천명으로 전국의 4.2%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대당 인구수가 2.79명으로 1995~1998년까지 증가세가 확대되다가 1999년부터 증가세가 둔화되고, 2001~2002년은 감소로 돌아섰다가 2003년부터는 전년대비 11천명이 증가하여 성장세로 전환되었다.

북부권(천안·아산·서산·홍성)과 경부축에 위치한 연기의 경우 수도권의 파급효과, 신산업

지대 형성, 아산만권배후신시가지·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사업 등의 추진 영향으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보이고, 그 외 교통결절지와 수도권 인접지역 및 시·군청소재지에서 인구증가하였으며, 그 밖에 농업 중심의 여타 시·군은 인구감소가 지속되었는데, 특히, 서천·청양·태안·금산 등은 인구 7만명 이하의 과소·낙후지역으로 분석되었다.

(2) 충남인구의 수도권 유출 및 노령화 진행 가속화

인구총조사보고서의 5년전 거주지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인구의 이동 특히, 수도권으로의 이동을 살펴보면, 1995~2000년까지 수도권으로 전입한 인구는 113만명으로 1990년의 이동 인구(155만명)보다는 적었다. 그중 충청권에서의 이동은 22.2%로 약 25.2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충남에서는 대전이나 충북보다 더 많은 약 11만명이 수도권으로 이동하였다. 1990년과 비교하면, 대전에서의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증가한 반면, 충남과 충북은 감소하였으며, 충남의 이동인구 감소폭이 더 컸다.

〈표 2〉 수도권 전입자의 전 거주지별 비율

지 역	1985-90년	95-2000년
대 전(%)	3.2	6.2
충 북(%)	7.5	6.5
충 남(%)	13.5	9.5
전입자(천명)	1,549	1,134

자료: 통계청, 1990,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2.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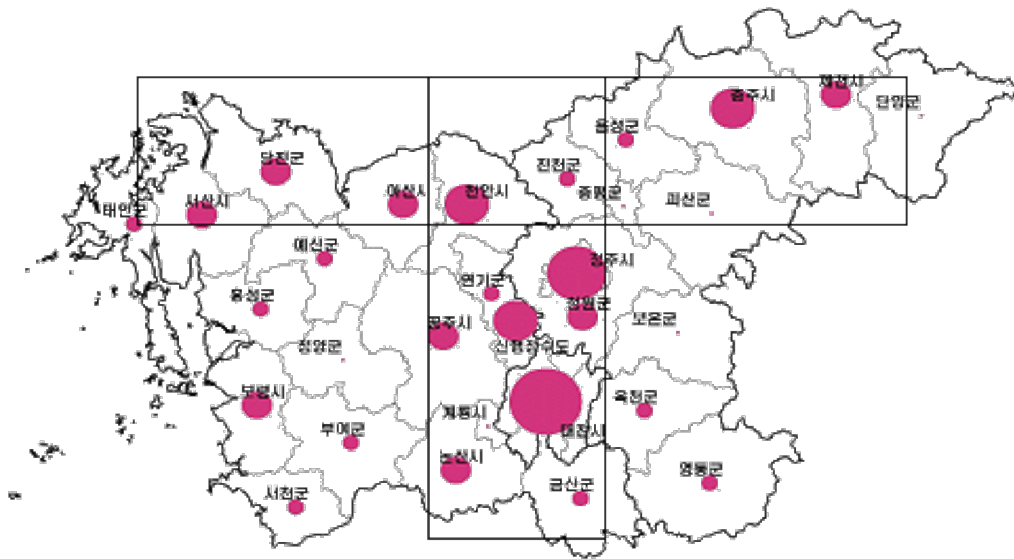
1) 도시분포패턴

전국의 도시화는 1970년에 50%를 넘었으며, 2000년에는 89%의 도시화율 보이고 있는데, 1990년을 경계로 크게 둔화된 모습으로 S자형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충청권의 도시화율 곡선은 전형적인 S자형이 아닌 완만한 지수곡선형을 보이는데, 이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에 의

하여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도시가 성장한 지역을 살펴보면, 과거 전산업시대에는 수운, 역사적 관성, 행정체계, 도로교통망의 발달로 충주-청주-공주-홍성으로 연결되는 ‘V자형’ 도시체계를 이루고 있다가, 철도교통과 산업발달, 경부선과 호남선의 분기 등 행정중심지 대전의 성장으로 대전~청주~천안의 ‘I자형’ 도시체계로 변화하였으며, 수도권 성장과 억제정책으로 충청권의 북부지역에 산업입지 및 이를 지원하는 교통망구축에 따라 현재는 대전-청주-천안 중심축과 서산-아산-천안-충주-제천을 중심축으로 하는 ‘T자형’ 도시체계로 변화하였다.

<그림 4> T자형 도시체계



2) 도시순위

충남의 읍급 이상의 도시를 대상(시는 洞부)으로 1995년과 2002년의 도시인구순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도시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는 타지역보다 천안(洞부)의 급성장이 크게 작용하였다. 또한, 그 순위가 크게 변화한 지역도 있는데, 태안읍, 계룡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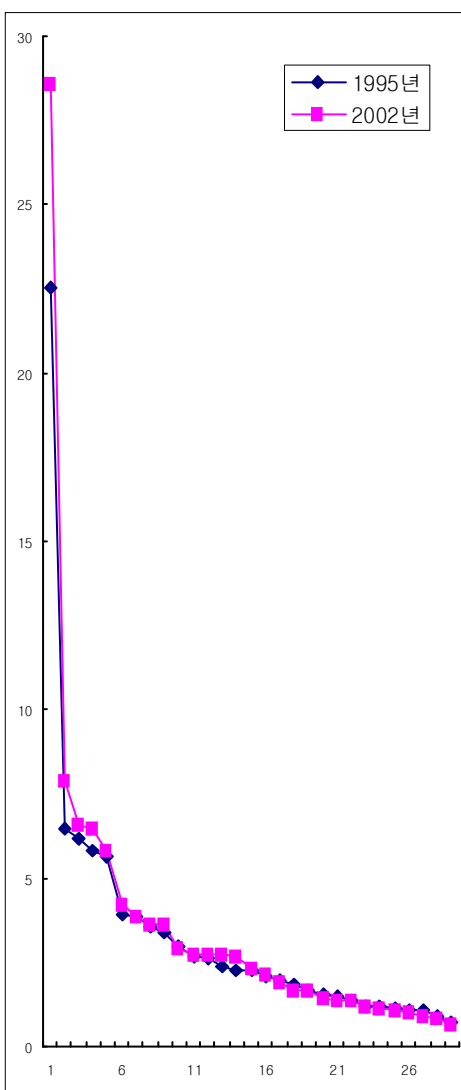
성거읍이 대표적이며, 순위의 변동은 상위도시에서의 인구성장차이, 하위도시에서는 인구감소차이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대전시를 포함할 경우, 도시간 격차는 더 크게 확대될 것으로, 대전시의 급성장과 천안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그 외 지역의 중심도시는 상위도시와의 격차가 벌어지는 반면, 북부지역의 도시를 중심으로 하위도시간의 격차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 충남 도시인구순위 분포

지역명	1995년 명	지역명	2002년 명
천안 동부	225,264	천안 동부	285,975
아산 동부	64,429	아산 동부	79,099
공주 동부	61,901	공주 동부	65,735
서산 동부	57,891	서산 동부	64,525
보령 동부	56,184	보령 동부	57,964
논산 동부	39,262	논산 동부	42,059
예산 예산읍	38,416	예산 예산읍	38,505
홍성 홍성읍	35,445	홍성 홍성읍	36,347
연기 조치원	33,807	연기 조치원	35,898
부여 부여읍	29,358	당진 당진읍	29,152
당진 당진읍	26,410	태안 태안읍	27,422
천안 성환읍	26,298	부여 부여읍	27,132
태안 태안읍	23,893	계룡 계룡시	27,122
금산 금산읍	22,704	천안 성환읍	26,450
논산 연무읍	22,499	금산 금산읍	23,161
서산 대산읍	20,820	논산 연무읍	21,523
서천 장항읍	19,286	서산 대산읍	19,056
홍성 광천읍	18,103	천안 성거읍	16,644
논산 강경읍	16,407	서천 장항읍	16,334
계룡 계룡시	15,495	홍성 광천읍	14,298
서천 서천읍	14,673	논산 강경읍	13,451
당진 합덕읍	13,674	서천 서천읍	13,439
공주 유구읍	11,926	당진 합덕읍	11,607
예산 삼교읍	11,830	청양 청양읍	11,544
보령 웅천읍	11,439	예산 삼교읍	10,829
청양 청양읍	10,672	공주 유구읍	10,311
천안 성거읍	10,578	태안 안면읍	8,938
태안 안면읍	8,961	보령 웅천읍	8,366
아산 염치읍	7,011	아산 염치읍	6,414

〈그림 5〉 충남 도시순위분포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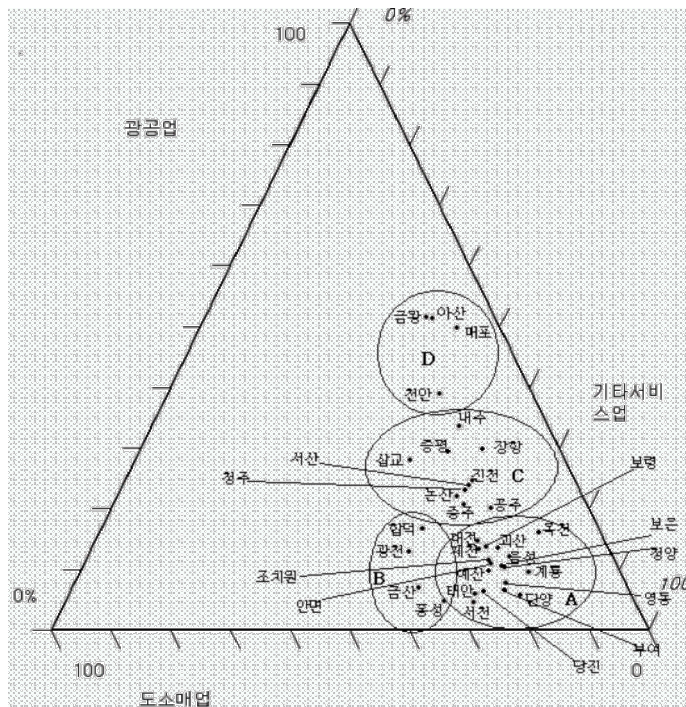


3) 삼각좌표에 의한 도시기능²⁾

도시의 산업구성으로 광공업·도소매업·기타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삼각좌표에 의해 분류하면, 전반적으로 충청권의 도시들은 기타 서비스업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광공업 비중은 아산·천안 등 수도권으로부터 근접한 도시들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도소매업과 광공업이 낮고 기타서비스업이 높은 도시(A)는 대도시이거나, 전통적인 지방 중심지이며, 도소매업과 기타서비스업 비중이 모두 높은 도시(B)는 발전이 정체되던 중심지이거나 내륙의 저차 중심지이고, B형의 도시와 성격이 유사하나, 광공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D)는 수도권과 근접하여 있어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며, C형의 도시들은 일반 소도시로서 산업단지 개발로 공업기능이 증가한 지역이다.

〈그림 6〉 충청지역 도시의 삼각도표 및 기능 분류



국토지리정보원(2003), 한국지리지(충청권), p166

2) 국토지리정보원(2003), 한국지리지(충청권), p164-167, 요약 정리

4) 산업종사자수의 Z-score를 이용한 도시기능³⁾

도시기능에 의한 지역구분에 있어서 2000년 기준 산업 대분류별 산업종사자수 자료를 이용하여 Z-score를 계산하고, 그 값을 넬슨(H. J. Nelson, 1955)의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때, Z-score가 평균치에서 표준편차 이상의 값을 갖는 산업을 우세산업으로 그 지역에 특화되었다고 본다.

분석 결과, 서산, 논산, 예산은 전 기능에서 Z값이 1을 넘지 않은 도시이고, 단일기능이 우세한 도시로는 천안, 공주, 홍성, 조치원으로, 천안은 제조업이 우세하나, 부동산 임대업, 오락문화운동기능 등 다수의 기능이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조치원은 오락문화운동기능, 홍성은 도소매업, 공주는 교육기능이 우세한 도시로 분류되었고, 단일의 기능이 매우 특화된 도시(하나의 기능 Z값이 2이상)로는 아산이 제조업이 특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다수의 기능이 우세한 도시(Z값이 2이상)로는 부여, 태안, 서천, 합덕으로 대부분 읍급 소규모 도시들이며, 다수의 기능이 특화된 도시들(다수 기능 Z값이 2이상)은 당진, 청양, 계룡, 금산 등으로 분석되었다.

Z값이 표준편차의 3배 이상으로 높은 특화도를 보이는 도시들도 있는데, 이들지역은 산업의 수가 전체적으로 극히 적은 산업을 보유한 지역으로 보령, 삽교, 안면, 장항 등이다.

3. 충남지역 계층구조

1) 이용자료 및 분석방법

지역계층을 분석하기 위해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이용하여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로 구분하고, 그 중 중심기능이라 할 수 있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G), 숙박 및 음식점업(H), 운수·창고 및 통신업(I), 금융 및 보험업(J),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K), 공공행정서비스업(L), 교육서비스업(M),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N),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O)

3) 국토지리정보원(2004), 전세서, p167-170. 요약 정리

의 총 72개 업종을 읍·면·동부로 구분하여 72×176개 자료행렬을 1995년과 2000년 자료구축하였다.

사업체수를 이용하여 중심지의 기능을 데이비스의 기능지수법(Functional index method)에 의해 계산하고, 분석 단위별로 이를 합한 값을 해당지역의 중심기능지수값이라 하고, 전체지역에서 해당지역이 갖는 기능 수행력(해당지역 중심기능지수/전지역 중심기능지수합*100)을 산출하여 이용하였으며, 충남지역의 시·군별 중심지 계층과, 대전·충남의 중심지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분석하였다.

2) 시군별 중심지 계층구조

충남지역의 15개 시·군(계룡시는 최근 시로 승격되어 논산시에 포함하여 분석함)별로 구분하여 기능지수와 기능수행력을 계산하고, 행정구역별로 세부지역의 계층구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논산시, 홍성군, 당진군이 3계층으로 구분되고, 그 외 시·군은 2계층으로 구분되었으며, 1995년은 4~5계층으로 구분되었으나, 2000년에는 2~3계층으로 축소됨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가 1계층을 형성하고, 나머지 읍 및 면소재지는 2계층으로 구분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논산시는 2계층에 연무, 강경, 연산, 계룡으로 95년에 3계층인 연산이 추가되었으며, 서천군은 1계층에 장항, 서천으로 1계층에 2개읍이 포함되는 유일한 시·군이었고, 홍성군은 95년 3, 4, 5계층이 모두 3계층으로 묶였다. 또한, 당진군은 2계층에 합덕, 송악, 신평으로 95년 3계층인 송악과 신평이 2계층으로 구분되고, 나머지는 3계층으로 묶임을 알 수 있다.

3) 대전·충남의 중심지 계층구조

대전·충남지역을 하나로 중심지 계층구조를 확대하여 분석하여 보면, 1995년 이전의 연구 결과에서는 1계층에 대전시, 2계층에 천안동부, 3계층은 주요 시·군청소재지, 4계층은 그 외 읍·면지역 등 4계층으로 구분되고 있었으나, 2000년에는 3계층과 4계층의 구분이 없어지고, 하나의 계층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그 수행력은 대전시가 증가하는 형태로 대전시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그 외 시·군의 중심지였던 시청·군청소재지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전을 제외한 충남지역만을 분석할 경우에도, 1계층에 천안동부, 2계층에는 15개 시·군청소재지에서 5개(금산, 부여, 서천, 청양, 태안)가 제외된 10개 시·군청소재지 그리고 3계층은 그 외 지역으로 구분되어 중간 중심지 계층의 기능을 수행하던 시·군청소재지의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표 4〉 대전·충남지역의 중심지 계층 변화(1981~2002년)

구분	1981년 중심지계층	수행력 (지역수)	1995년 중심지계층	수행력 (지역수)	2002년 중심지계층	수행력 (지역수)
1 계층	· 대전시	40.30 (1)	· 대전시	46.10 (1)	· 대전시	46.69 (1)
2 계층	· 천안동부	7.12 (1)	· 천안동부	11.09 (1)	· 천안동부	9.93 (1)
3 계층	· 아산동부, 공주동부, 보령동부, 서산동부, 논산동부 · 예산읍, 홍성읍 금산읍, 부여읍	23.72 (9)	· 아산동부, 서산동부, 공주동부, 보령동부, 논산동부 · 홍성읍, 예산읍 · 조치원읍	19.07 (8)	· 공주동부, 아산동부, 서산동부, 보령동부, 논산동부 · 조치원읍, 부여읍, 당진읍, 예산읍, 홍성읍 · 27개읍, 147개면	43.38 (174)
4 계층	· 조치원읍, 당진읍, 광천읍, 합덕읍, 서천읍, 강경읍, 연무읍, 성환읍 · 18개읍, 144개면	28.86 (162)	· 금산읍, 부여읍 · 17개읍, 147개면	23.74 (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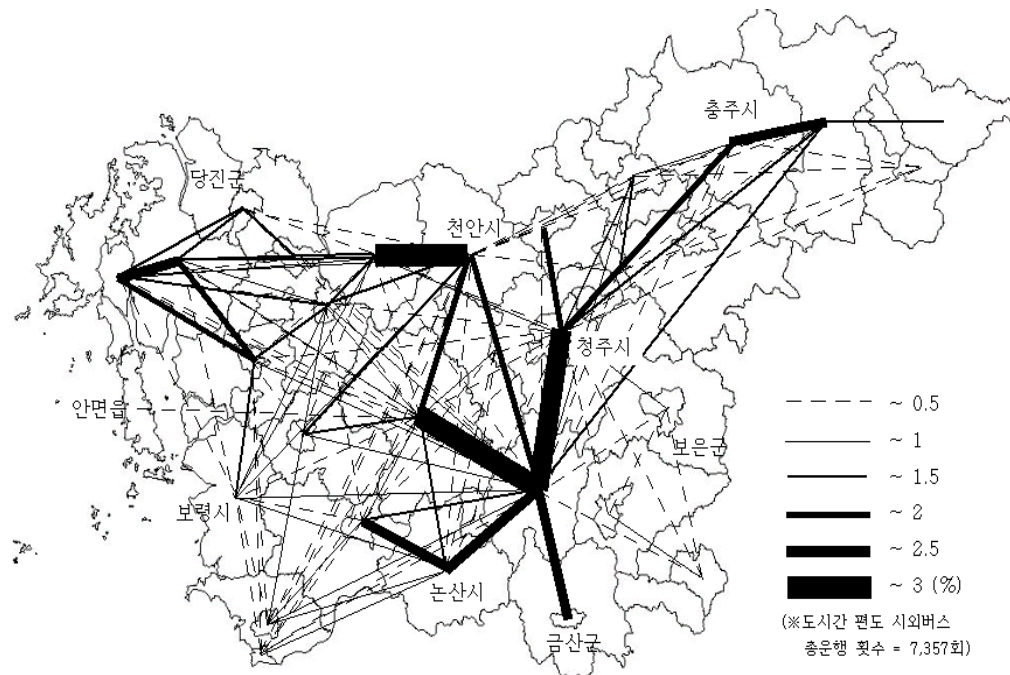
4. 지역간 상호작용

1) 버스 유동량⁴⁾

충 버스 유입량을 기준으로 중심성을 살펴보면, 대전, 청주, 천안, 공주, 논산 순의 시외버스 유입량을 보이기 때문에, 대전이 최대의 결절점, 청주, 천안, 공주, 논산 등이 다음 결절을 이루고 있다.

버스 유동량은 직접 연결만을 다루기 때문에, 간접연결을 고려하여 그래프 이론을 적용한 도시간 연결도(connectivity)분석, 각 도시별 최고 연결도와 2순위 및 3순위 연결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림 7〉 충청지역 시외버스 유동



국토지리정보원(2003), 전개서, p179

4) 국토지리정보원(2003), 전개서, p176-181, 요약 정리

버스 유동량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1차 중심지(대전), 2차 중심지(청주, 천안, 공주), 3차 중심지(논산, 서산-태안, 홍성, 충주), 4차 중심지(당진, 부여, 제천)로 중심지(도시) 체계의 계층을 구분할 수 있었다.

2) 통근통학 통행패턴

충청권의 지역간 상호작용체계 파악을 위해 통근·통학 인구이동 O-D자료 이용하여 통행량 분석을 하였는데, 주연계분석에서 대전이 가장 주변지역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보이고 있으며, 청주와 천안이 충남과 충북에서 주변지역과의 상호작용이 큰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장항선과 충북선으로 연결되는 지역간의 상호작용이 도출되는데, 이는 과거부터 철도에 의해 지역간 통근통학 등 통행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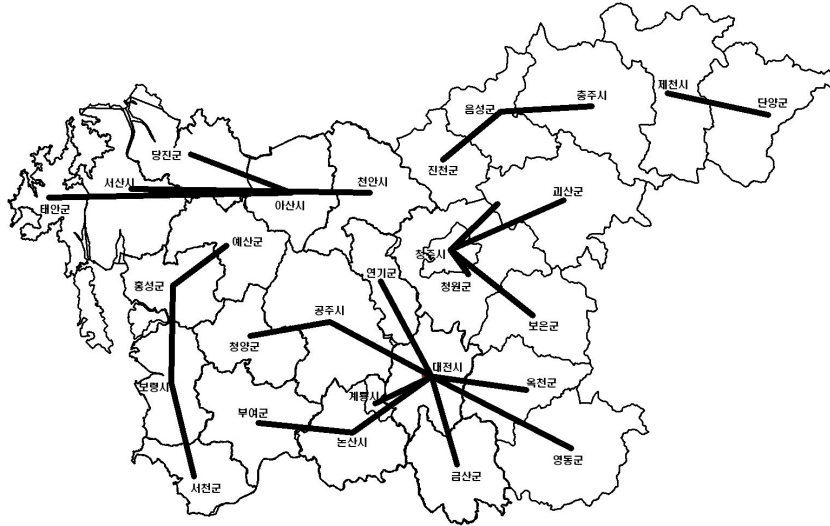
제2위류를 보면, 지역의 생활권이 표현되고 있는데, 청주시(7개), 서구·동구(각 6개), 중구(5개), 홍성군(4개), 충주시·유성구·서산시(3개)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표 5〉 출발지 기준의 연도별 통행량(통근·통학) 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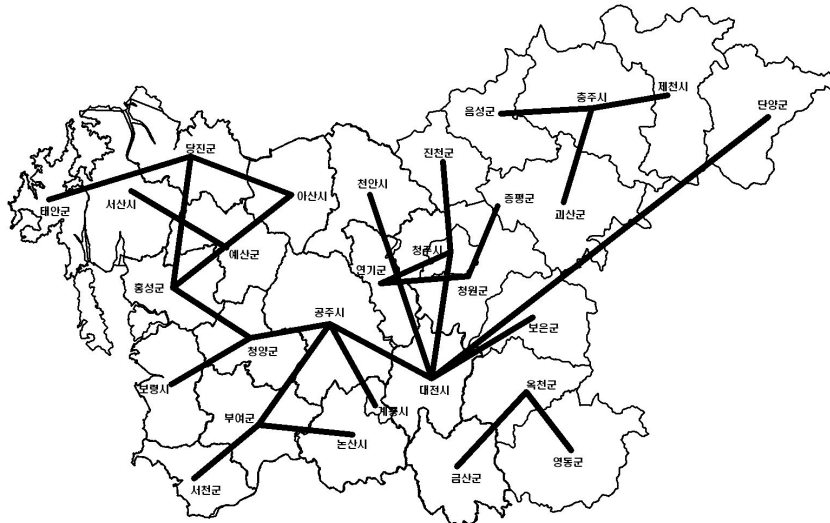
구 분	1995년		2000년		구 분	1995년		2000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대전시	논산시	금산군	논산시	공주시	연기군	대전시	천안시	대전시	천안시
천안시	서산시	대전시	서산시	대전시	부여군	논산시	서천군	논산시	공주시
공주시	대전시	논산시	대전시	청양군	서천군	부여군	보령시	보령시	부여군
보령시	홍성군	서천군	홍성군	청양군	청양군	공주시	예산군	공주시	홍성군
서산시	천안시	예산군	천안시	예산군	홍성군	예산군	아산시	예산군	아산시
아산시	태안군	당진군	태안군	당진군	예산군	홍성군	서산시	홍성군	서산시
논산시	대전시	부여군	대전시	부여군	태안군	아산시	홍성군	아산시	당진군
계룡시	대전시	논산시	대전시	공주시	당진군	천안시	예산군	아산시	홍성군
금산군	대전시	논산시	대전시	천안시					

〈그림 8〉 충청권 통근·통학 인구이동의 공간패턴(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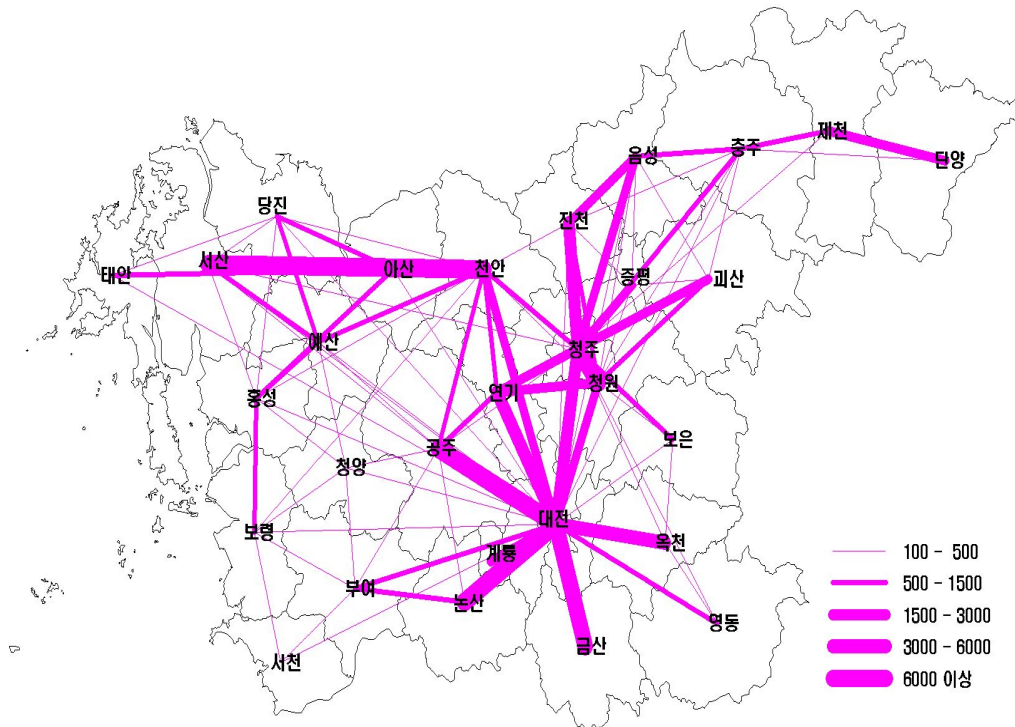
제1위류



제2위류



〈그림 9〉 충청권의 통근·통학 통행량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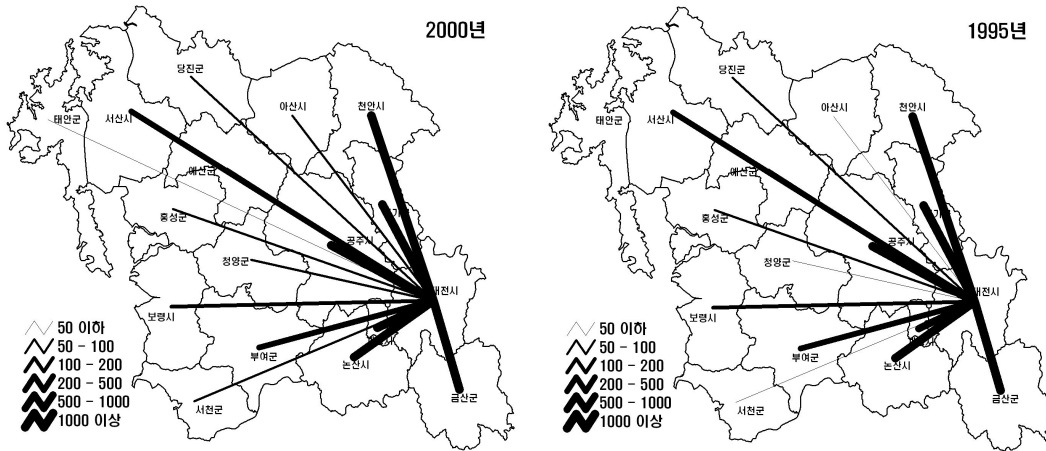


통근·통행량의 분포를 기준으로 충청권내 지역간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대전을 중심으로 청주와 천안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한편, 청주와 천안은 각각 그 주변지역을 포섭하여 광역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다.

계획된 고속도로가 전부 완공되면 대전·천안·청주의 영향권은 더욱 확대되어갈 것이며, 신행정수도가 건설될 경우 이를 중심으로 대전광역도시권, 청주광역도시권, 천안·아산광역도시권간의 상호 연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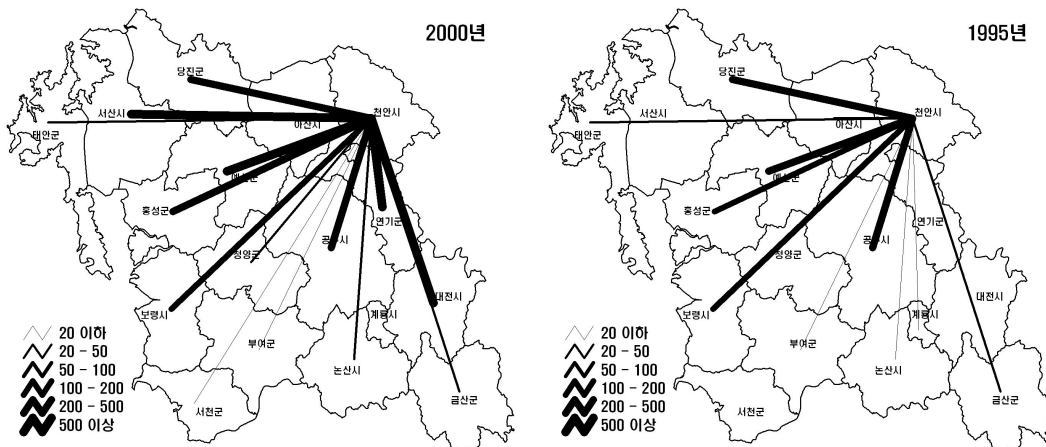
대전광역시와 천안시 중심의 통근·통학 연계권 확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전광역시의 통행권은 천안, 연기, 공주, 부여, 논산, 금산지역으로서 이 지역에서의 연계성은 강화되고 있으며, 태안·아산·서천군까지 확대되면서 충남의 거의 모든 지역이 대전과 연계되어 있는 형태를 보인다.

〈그림 10〉 대전광역시 중심의 통행량 분포



천안시의 통행권은 그 범위가 아산, 당진, 예산, 홍성, 보령, 공주지역으로 주로 장항선을 따라 형성되어 있었는데, 2000년에는 서산, 연기, 대전과의 연계성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논산, 서천, 태안까지 그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그림 11〉 천안시 중심의 통행량 분포



5. 지역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

1) 충청권 시·군단위의 지역분화⁵⁾

충청권의 지역분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33개 단위지역과 인구·가구, 사회·경제, 토지이용 등과 관련된 33개 변수를 행렬로 작성하여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는데, 여기에는 12개의 인구적 변수, 2개의 사회적 변수, 17개의 경제적 변수, 2개의 공간적 변수로 구성되었다.

요인분석(factor analysis) 결과, 5개요인 추출되었으며, 고유치는 요인 1이 18.6163에서 요인 5가 1.1351까지였고, 요인의 설명량은 요인 1이 56.41%에서 요인 5가 3.44%까지로 누적 설명량은 86.56%를 보였다.

요인별 특성을 살펴보면, 요인 1은 '도시화'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경부축 선상의 시·군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요인 2는 '주거'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요인 3은 '고급서비스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중·대도시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요인 4는 '개인서비스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경부축의 광범위한 지역, 서해안 일부 지역, 충북 동부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요인 5는 '제조업'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경부축의 일부 지역과 경기도 인접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충청남도 읍·면단위의 지역분화

(1) 이용자료 및 분석방법

각 시·군의 통계연보, 통계청 인구센서스, 농업총조사 자료 등 읍·면별로 구분된 자료를 선정하여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구축된 자료를 SPSS 통계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요인분석 결과(요인별 점수)를 Arcview GIS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읍·면별로 결과를 도면으로 작성하였다.

요인분석은 다변량 통계기법 중의 하나로서 다수의 변수들간의 상관관계에 바탕을 두고 행

5) 국토지리정보원(2003), 전게서, p335-342, 요약 정리

하여지는 분석 방법으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여러 변수들로 측정된 자료보다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축소하거나 요약할 수 있다.

요인분석에 사용된 요인추출법은 정보를 최소의 요인으로 압축하고, 요인의 성질과 수가 어떠한가를 알기 위해 주성분분석법(principle component analysis: PCA)을 사용하고, 요인의 회전방법은 직각회전(orthogonal rotation)방법으로 베리맥스(varimax)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직각회전은 요인들간의 상호독립성을 유지하므로, 요인분석의 결과로 나타나는 요인점수(factor score)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이나 판별분석을 수행할 때 요인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에 의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지표선정

충남지역의 읍·면별 기능유형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을 설명하는 지표로 도시적 토지이용률, 농업적 토지이용률, 임야율 등 토지이용특성지표 3개, 인구연평균변화율, 노령인구비율, ha당 인구밀도 등 인구특성지표 3개, 농가율, 전업농가율, 겸업농가율, 제조업체수, 도·소매업체수, 음식·숙박업체수 등 지역경제지표 6개로 총 12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표 6〉 2002년도 지역유형 구분을 위한 변수 특성

변수명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변동계수
인구 특성	인구밀도	25.35	0.26	1.92	2.87	1.50
	인구증감률	24.64	-17.57	-1.76	4.45	-2.53
	고령인구율	47.30	5.57	19.18	5.91	0.31
	농가율	123.85	4.83	50.69	19.25	0.38
산업 경제	제조업	241.00	3.00	44.36	42.49	0.96
	도소매	1,390.00	3.00	117.91	202.75	1.72
	숙박음식	777.00	0.00	88.01	136.35	1.55
	전업농가율	110.40	22.20	66.38	13.88	0.21
	겸업농가율	72.62	4.93	33.47	12.54	0.37
토지 이용	임야율	91.73	2.48	49.89	18.97	0.38
	농촌적토지이용	118.53	14.19	75.32	14.55	0.19
	도시적토지이용	28.26	1.38	6.42	3.63	0.57

(3) 요인분석 결과

요인분석의 적용가능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KMO (kaiser-meyer-olkin)과 Bartlett test를 실시하여, KMO 값이 0.727, Bartlett test결과도 구형성검증이 0.000, 공통성도 0.547-0.935로 비교적 변수선택이 적당하다고 할 수 있고, 총 4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80.585%로 지역특성을 규명하는데 높은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

〈표 7〉 KMO & Bartlett Test 결과

KMO	Chi-Square	df	Sig
0.727	1580.097	66	0.000

〈표 8〉 2002년 변수별 요인부하량⁶⁾

요인	변수	요인적재량	공통성	Eigenvalue	Communality
1요인	도소매업체수	.933	.883	3.992	33.264
	숙박음식업체수	.875	.803		
	제조업체수	.843	.782		
	인구밀도	.774	.775		
2요인	인구변화율	-.805	.707	2.094	17.449
	노령인구비율	.695	.779		
	농가율	.670	.832		
	농업적 토지이용률	.579	.547		
3요인	겸업농가율	.940	.925	1.916	15.969
	전업농가율	-.920	.935		
4요인	임야율	.911	.849	1.669	13.904
	도시적 토지이용률	-.719	.852		

요인별로 살펴보면, 1요인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제조업, 인구밀도 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Eigenvalue가 3.993, 분산설명력이 33.26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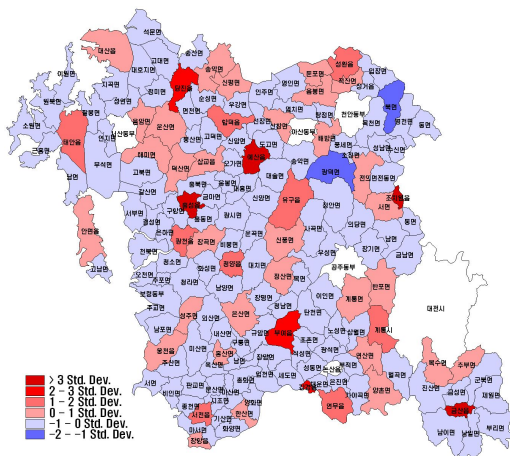
요인점수가 높은 지역들은 군청소재지 및 읍지역이 대부분으로 전형적인 도시지역을 설명하고 있다.

6)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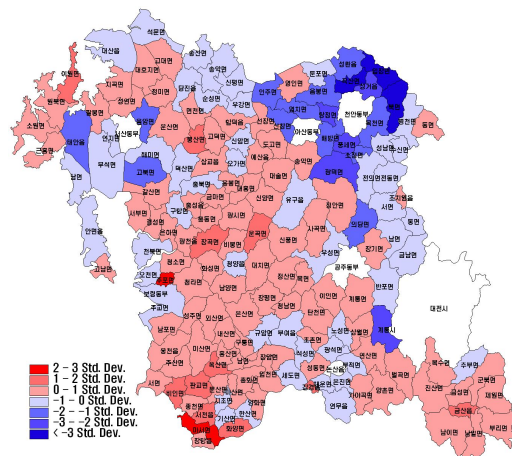
요인 2는 인구변화율, 노령인구비율, 농가율, 농업적 토지이용률 변수로 구성되어 있고, Eigenvalue가 2.094, 분산설명력이 17.449으로 분석되었는데, 요인점수가 높은 지역들은 당진, 논산 등 농경지가 많은 평야지대 지역으로 전통적인 평야농촌지역이 여기에 속한다.

〈그림 12〉 요인별 점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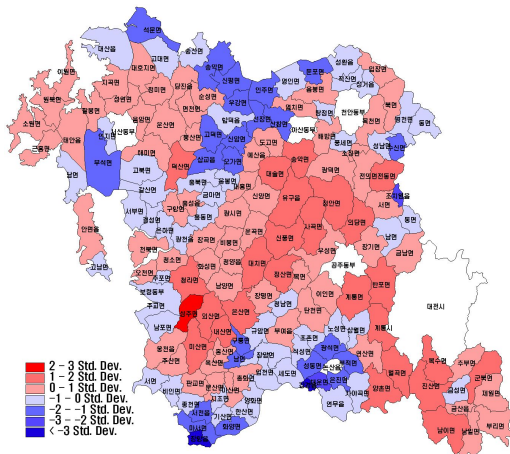
1요인 점수값의 분포(도시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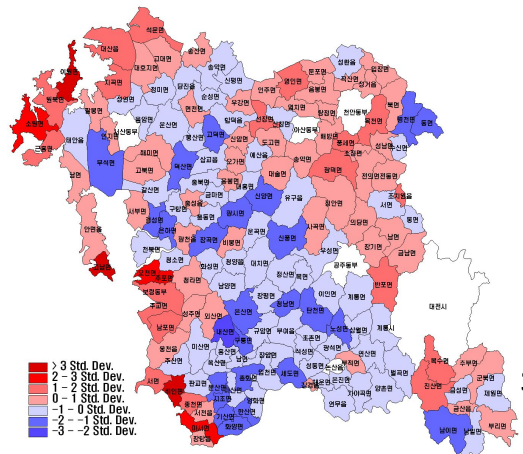
2요인 점수값의 분포(농촌형)



3요인 점수값의 분포(어업·겸업형)



4요인 점수값의 분포(산촌형)



요인 3은 겸업농가율, 전업농가율 변수로 구성되어 있고, Eigenvalue가 1.916, 분산설명력이 15.969이며, 요인점수가 높은 지역들은 서해안지역과 도시근교지역으로 농업과 어업 및 기타 겸업이 가능한 지역들로서, 도시근교지역은 개발잠재력이 높아 난개발이나 계획적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로 도시화가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이다.

요인 4는 임야율, 도시적 토지이용률 변수로 구성되어 있고, Eigenvalue가 1.669, 분산설명력이 13.904이며, 요인점수가 높은 지역들은 청양을 중심으로 한 산촌지역으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낙후지역이다.

〈표 9〉 요인별 점수 1.0 이상인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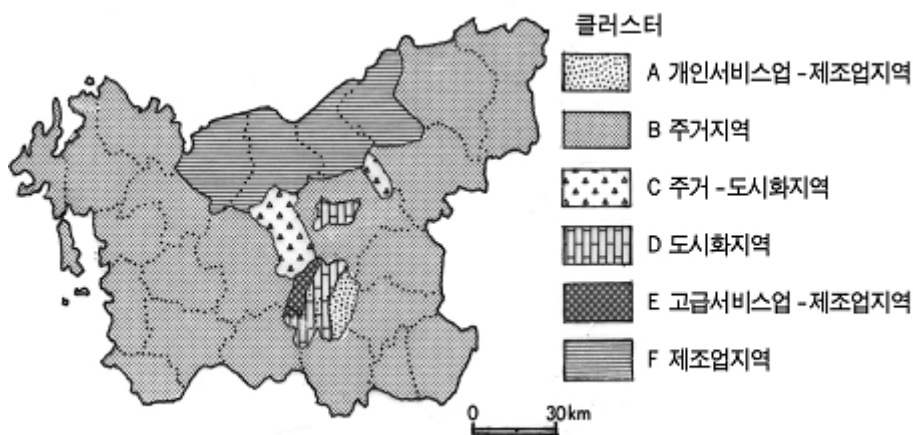
구분	1요인		2요인		3요인		4요인	
해 당 지 역	홍성 홍성읍	4.97410	서천 마서면	2.83188	태안 이원면	3.65286	보령 성주면	2.37143
	금산 금산읍	4.88193	보령 주포면	2.13995	태안 고남면	3.41794	공주 유구읍	1.94741
	연기 조치원	4.71120	서천 서천읍	1.95870	서천 비인면	3.40034	공주 반포면	1.68411
	예산 예산읍	4.51136	서천 비인면	1.66673	태안 소원면	2.15591	논산 벌곡면	1.66961
	당진 당진읍	2.97884	논산 강경읍	1.62149	보령 주포면	2.15111	금산 남이면	1.62161
	논산 강경읍	2.86033	서천 화양면	1.53173	보령 오천면	2.01984	공주 사곡면	1.46705
	부여 부여읍	2.75409	태안 이원면	1.51761	서천 마서면	2.01806	금산 진산면	1.44265
	태안 태안읍	1.98770	금산 금산읍	1.29356	서산 대산읍	1.85021	부여 외산면	1.41622
	천안 성환읍	1.72435	부여 옥산면	1.17064	태안 근흥면	1.84962	금산 복수면	1.40793
	홍성 광천읍	1.63036	서천 판교면	1.12822	서천 서면	1.77056	공주 정안면	1.38143
	공주 유구읍	1.46821	예산 봉산면	1.10937	보령 주교면	1.51068	공주 신평면	1.37715
	논산 연무읍	1.41804	청양 운곡면	1.03350	천안 광덕면	1.49647	청양 대치면	1.37009
	당진 합덕읍	1.27360	홍성 장곡면	1.01095	공주 반포면	1.42049	아산 송악면	1.28867
	청양 청양읍	1.18196			아산 선장면	1.38611	계룡 계룡시	1.24872
	서천 서천읍	1.12765			금산 복수면	1.37802	보령 미산면	1.22853
	계룡 계룡시	1.05292			서천 중천면	1.37574	예산 덕산면	1.21098
					연기 조치원	1.28702	청양 정산면	1.18203
					당진 석문면	1.27799	부여 은산면	1.15217
					아산 영인면	1.25779	부여 내산면	1.13897
					보령 남포면	1.25643	공주 의당면	1.09180
					태안 원북면	1.20790	예산 대술면	1.08932
					서산 지곡면	1.17132	공주 계룡면	1.05225
					천안 목천면	1.12018	연기 전동면	1.03812
					천안 풍세면	1.07646	논산 양촌면	1.03398
					금산 진산면	1.02995	보령 청라면	1.02959
							금산 군북면	1.02291

3) 등질지역

(1) 충청권 시군단위 분석⁷⁾

충청권의 등질지역을 파악 위해 요인분석 결과점수를 이용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후, 덴드로그램(dendrogram) 상에서 6개 클러스터로 구분하였다.

〈그림 13〉 충청권의 등질지역 구분



국토지리정보원(2003), 전개서, p342

클러스터 A는 요인 4의 정요인점수 평균치(4.3609)와 요인 5의 부요인점수 평균치(-0.7434)가 높아 개인서비스업-제조업지역의 특성을 보이는 지역으로 대전시 동구가 여기에 속한다.

클러스터 B는 요인 2의 부요인점수 평균치(-0.6223)만 높아 주거지역의 특성을 보이고 대부분의 지역이 여기에 속한다.

클러스터 C는 요인 2의 정요인점수 평균치(2.4750)와 요인 1의 부요인점수 평균치(-1.0153)가 높아 주거-도시화지역의 특성을 보이며, 증평군, 연기군, 계룡시가 여기에 속한다.

클러스터 D는 요인 1의 정요인점수 평균치(2.2916)가 높아 도시화지역의 특성을 보이며, 대전시 중구, 대덕구, 서구 및 청주시가 여기에 속한다.

7) 국토지리정보원(2003), 전개서, p339-342, 요약정리

클러스터 E는 요인 3의 정요인점수 평균치(4.1694)와 요인 5의 정요인점수 평균치(1.6743)가 높아 고급서비스업-제조업지역의 특성을 보이고, 대전시 유성구가 여기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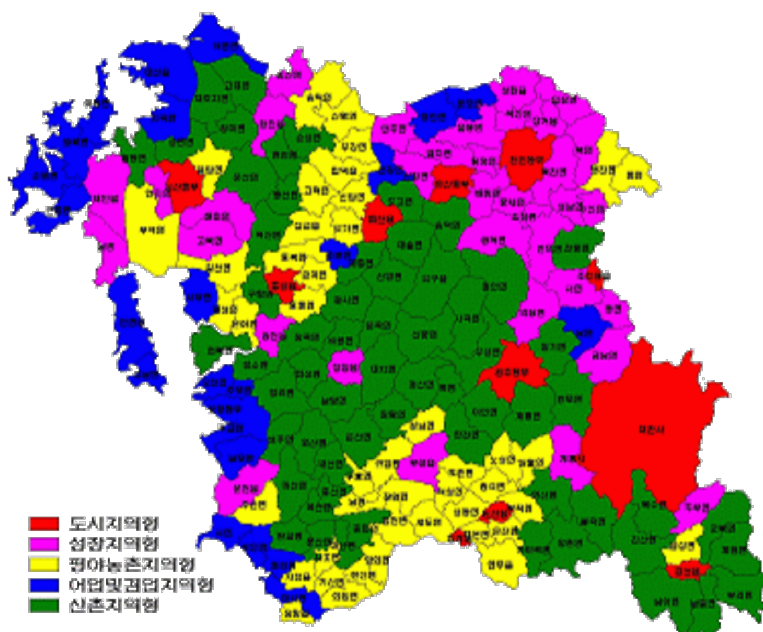
클러스터 F는 요인 5의 정요인점수 평균치(2.1473)가 높아 제조업지역의 특성을 보이고, 진천군, 음성군, 아산시, 천안시가 여기에 속한다.

(2) 충청남도 읍면단위 분석⁸⁾

앞에서는 시군별로 분석하였으나, 시군내부에서도 지역적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읍면별로 분석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계산된 읍·면별 요인점수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여기에는 WARD법을 이용하고, 측도는 제곱 유클리디안 거리를, 값의 변환은 Z-점수값으로 하여 덴드로그램을 작성하여 군집을 구분하였다.

〈그림 14〉 2002년 군집분석에 의한 지역유형 분포



8) 읍·면별 지역특성 자료(인구밀도, 인구증감률, 고령인구율, 농가율, 제조업체수, 도소매업체수, 숙박음식업체수, 전업 농가율, 겸업농가율, 임야율, 농촌적 토지이용률, 도시적 토지이용률 등 12개 지표)를 이용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 및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에 의해 지역유형을 구분

군집의 수는 통계적으로 군집화되는 과정에서 정보 손실량(loss of detail)이 급격히 증대되는 급변점, 즉 거리계수 값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곳에서 대체로 결정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군집수가 5개인 곳에서 유형의 수를 결정하였다.

〈표 10〉 2002년 유형별 지역현황

유형	해 당 지 역	비고
도시 지역형	금산 금산읍, 논산 강경읍, 연기 조치원읍, 예산 예산읍, 홍성 홍성읍	5
성장 지역형	아산 배방면, 신창면, 탕정면, 염치읍, 음봉면, 인주면, 당진 당진읍, 송산면 부여 부여읍, 천안 성환읍, 성남면, 성거읍, 입장면, 직산면, 목천면, 수신면, 풍세면, 광덕면, 복면, 청양 청양읍, 태안 태안읍, 남면, 홍성 광천읍, 공주 의당면, 서산 해미면, 고북면, 인지면, 계룡시, 금산 추부면, 연기 금남면, 서면, 소정면, 전의면, 동면, 보령 웅천읍	35
평야 농촌형	논산 노성면, 상월면, 광석면, 부적면, 성동면, 은진면, 채운면, 연무읍, 당진 합덕읍, 신평면, 송악면, 우강면, 서천 기산면, 한산면, 서천읍, 장항읍, 화양면, 시초면, 부여 석성면, 규암면, 세도면, 초촌면, 구룡면, 남면, 양화면, 임천면, 장암면, 홍성 갈산면, 결성면, 금마면, 은하면, 홍북면, 홍동면, 서산 부석면, 음암면, 예산 고덕면, 삼교읍, 신암면, 오가면, 금산 금성면, 청양 청남면, 천안 동면, 병천면, 보령 주산면	44
어업 경영형	서산 대산읍, 지곡면, 보령 남포면, 주포면, 서천 마서면, 비인면, 서면, 종천면, 아산 둔포면, 선장면, 영인면, 예산 웅봉면, 홍성 서부면, 당진 석문면, 보령 오천면, 주교면, 태안 고남면, 근흥면, 소원면, 안면읍, 원북면, 이원면, 연기 남면	23
산촌 지역형	홍성 구항면, 장곡면, 서산 성연면, 팔봉면, 운산면, 당진 고대면, 면천면, 순성면, 대호지, 정미면, 공주 반포면, 장기면, 우성면, 사곡면, 정안면, 계룡면, 신평면,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금산 복수면, 군북면, 진산면, 부리면, 제원면, 남이면, 남일면, 보령 성주면, 천북면, 청소면, 청라면, 미산면, 논산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 연산면, 부여 외산면, 홍산면, 옥산면, 내산면, 은산면, 충화면, 아산 송악면, 도고면, 연기 전동면, 예산 덕산면, 대술면, 봉산면, 광시면, 대흥면, 신양면, 청양 남양면, 목면, 비봉면, 운곡면, 장평면, 대치면, 정산면, 화성면, 서천 판교면, 마산면, 문산면	62

그 결과, 도시지역형, 성장지역형, 평야농촌형, 어업 및 겸업지역형, 산촌지역형으로 구분되었는데, 도시지역형은 시·군청소재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나, 도시의 규모가 작거나 쇠퇴하고 있는 도시의 시·군청소재지는 빠져 있었다. 이는 과거 시·군청소재지가 시·군의 중심지로 기능을 하고 있었으나, 경부축의 성장, 북부권의 산업성장 및 대전권 주변지역 도시들은

성장하는 반면 그 외 시·군의 중심지는 쇠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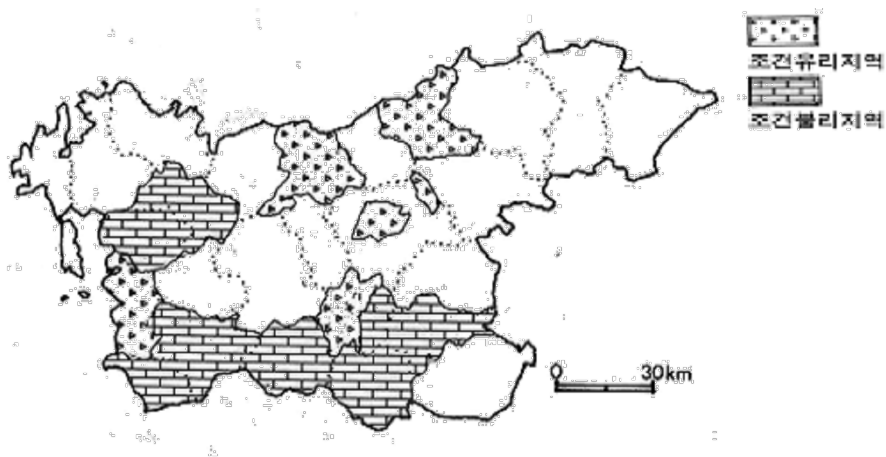
성장지역형도 도시지역형에서 제외된 시·군청소재지와 해당 시·군의 읍지역, 그리고, 천안주변지역이 포함되었는데, 도시지역형에서 제외된 시·군청소재지는 미약하나마 지역의 중심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타 면지역보다는 성장된 도시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수도권과 인접하고, 경부축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천안 및 주변지역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들 지역은 수도권의 개발억제정책으로 산업입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항만을 중심으로 북부권 전역으로 성장하여 가고 있는 지역이다.

평야농촌형은 당진, 서산, 예산, 홍성지역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과, 논산, 부여, 서천으로 이어지는 금강주변지역으로 평야가 발달한 지역이 속하는데, 천안의 일부지역은 기존에 농촌 지역이었으나, 산업입지 및 개발로 인해 성장지역형으로 분류되고 남은 지역이다.

어업 및 겸업지역형은 서해안의 어촌지역이 대부분 여기에 속하고, 일부 하천주변지역도 이에 속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촌지역형은 계룡산, 칠갑산이 있는 차령산맥에 속하는 지역들이 대부분으로 지형적 여건상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지역으로 그 변화가 거의 없거나 매우 느린 지역이다.

〈그림 15〉 시·군별 조건유리·불리지역



국토지리정보원(2003), 한국지리지(충청권), p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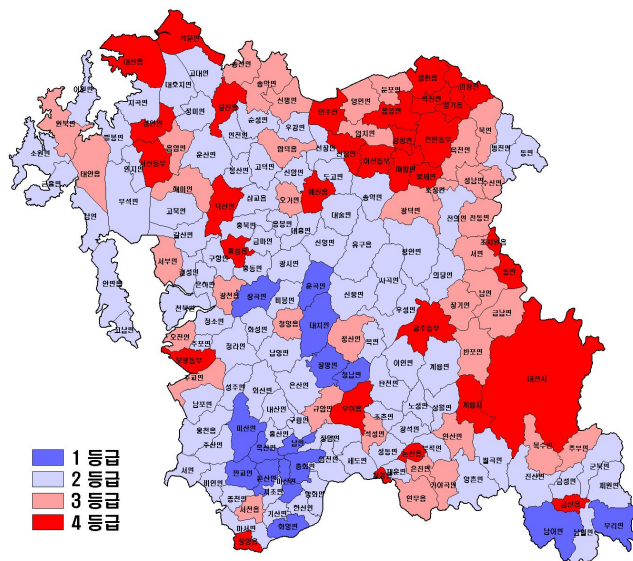
4) 조건 유리 및 불리지역

조건유리 및 불리지역은 인구·가구, 사회·경제 및 토지 이용 부문에서 발전된 지역 또는 낙후된 지역으로, 분석지표는 33개로 Z-score를 산출, 개별지표의 정규성과 지표들간의 상관 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조건 유리 및 불리 지역의 분류는 부문별·지역별 Z-score 종합지수를 4사분위수 분석을 통해 1~4등급으로 구분, 1~2등급은 조건유리지역, 3~4등급은 조건불리지역으로 구분하였다.

5) 지역간 발전격차⁹⁾

지역간 발전격차에 있어서는 시·군청소재지와 충남의 북부지역과 경부고속도로축 및 호남고속도로축 일대의 읍·면은 발전지역에 속하며, 농어업지역은 전반적으로 발전수준이 낮으며, 특히 부여·서천 경계부와 청양군, 금산군의 산악지역은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그림 16〉 충남지역의 읍·면별 발전격차(2002)



9) 읍·면별 지역특성 분석과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여 표준화점수(z-score)를 산출하여 평균함

제 3 장 충청남도 지역구조 변화 전망

1. 인구 및 도시체계 변화 전망

1) 신행정수도 건설의 따른 영향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연구들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는 부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공간 레벨별·지역별 공간구조 변화는 국토차원에서 볼 때,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통해 수도권은 경제수도 기능 담당, 충청권은 정치·행정수도 기능을 담당하는 2원화된 중심형태로 변화를 피하고 있다.

〈표 11〉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정의 효과	負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변화 • 고용 및 생산유발 • 경제활동의 다양화 효율화 • 지역중추기능(거점성)의 강화 • 주변지역의 활성화 • 주민의 생활편익·복지 증진 • 교육의 질적 향상 및 양적 확대 • 지역주민의 자긍심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도시의 인구유출/자족기능 약화 • 도내 지역간 격차 확대 및 불균형 성장 • 주변 대도시의 생활환경 악화 • 도시간 연담화, 난개발 심화 • 부동산 가격의 비정상적 상승 • 소지역이기주의 확산 • 주민통합성 약화

신행정수도는 기존 경부축의 공간집중을 더욱 심화하게 될 것이며, 충청권의 중심도시 대전의 기능 확대와 서울,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부산 광역도시권 중심으로 국토공간구조 재편되고, 수도권 남부와 신행정수도 간의 공간적, 기능적 연담화로 수도권과 신행정수도권을 포함하는 광역대도시권(megalopolis)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순기능을 강화하며, 신행정수도 건설과 더불어 광역적 연계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충청권의 주요 도시간 교통·통신망의 확충이 선행되어, 도시간에 경쟁과 함께 상호보완적 관계형성을 위한 도시특성별 전략산업과 기능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차별적인 지역변화 효과

공주, 논산, 연기 등 신행정수도 연접지역은 각종 기능의 집중, 토지개발 수요 증대 등 근교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한편 난개발, 연담화, 경관·환경훼손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이는 종래의 신도시 개발의 경우, 개발지역내에서는 계획적으로 양호한 시가지가 형성되지만, 충분한 기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변지역에 무계획적으로 주택이나 각종 시설이 입지하는 이른바 스프롤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해안고속도로 좌우 10km의 영향권 지역은 관광객과 기업입지가 증가하는 한편, 지역상권의 이탈로 상업·서비스업이 약화될 수 있으며, 신행정수도가 건설될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예산·청양·부여 등 내륙지역은 주력산업인 농업의 쇠퇴와 인구감소가 지속되는 한편, 부정적인 신행정수도 건설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3) 신행정수도 중심의 광역도시권 형성

신행정수도가 건설될 경우, 신행정수도를 중심 도시로 하는 광역도시권이 새로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계획적 유도를 위해 광역도시권에 대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4) 신행정수도 이전과 지역 발전과의 관계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날 전망으로 수도기능을 지원하는 고도의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며, 생활환경은 광역·다핵·연계 도시로 된 신행정수도권이 새롭게 형성될 것이고, 도로·교통·통신망, 공급 처리 시설 등 다양한 생활 기반이 클러스터 형태로 발전되어 지역 주민의 생활 편리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적 기관과 기능이 입지하고, 국제 교류의 진전에 수반하는 국제적 분위기가 증대될 것이며, 전문적 연구 기관 등의 입지에 따라 교육 연구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5) 예상 문제점 : 공간적 분화(Spatial Divide)에 따른 지역내 성장 격차 심화

고속철도의 개통과 광역교통망의 확충 등으로 인하여 충남 서부-북부축이 수도권지역에 기능적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크고, 공장총량제 등의 수도권 규제와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국제 분업의 심화로 천안·아산지역이 대기업의 생산기지로 부각될 것이다.

(1) 산업입지

현재 추진중인 삼성전자는 탕정지역에 LCD산업과 관련하여 상당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아산공장을 선호하는 등 충남 서부-북부축은 IT와 자동차산업 등이 집적한 수도권 남부지역과의 기능적인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충남지역에 LCD와 자동차산업, 바이오산업, 문화산업 등이 집적하는 것은 충남자체의 내부역량보다는 외부요인(예: 수도권 규제, 기업전략, 중국 부상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

충남 산업이 이러한 발전 시나리오에 따른다면, 충남지역 내 불균형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는데, 대전, 천안·아산 지역은 수도권에 기능적으로 편입되어 성장 속도가 가속화되지만, 충남 중부내륙 및 서해안 축은 1차 산업 중심으로 발전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신행정수도가 공주·연기지역에 입지할 예정이어서 행정수도건설 예정지역, 대전지역, 오송, 청주지역 등이 발전지역으로 부상하여, 중심(발전)지역과 주변지역간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충남지역의 정체성, 안정성, 지속성, 유기적 발전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충남 중부내륙 및 서해안 지역은 주변지역으로, 신행정수도 인근 지역은 발전지역으로, 충남 서부-북부 지역은 광역수도권 편입 등으로 충남이 공간적으로 분절될 우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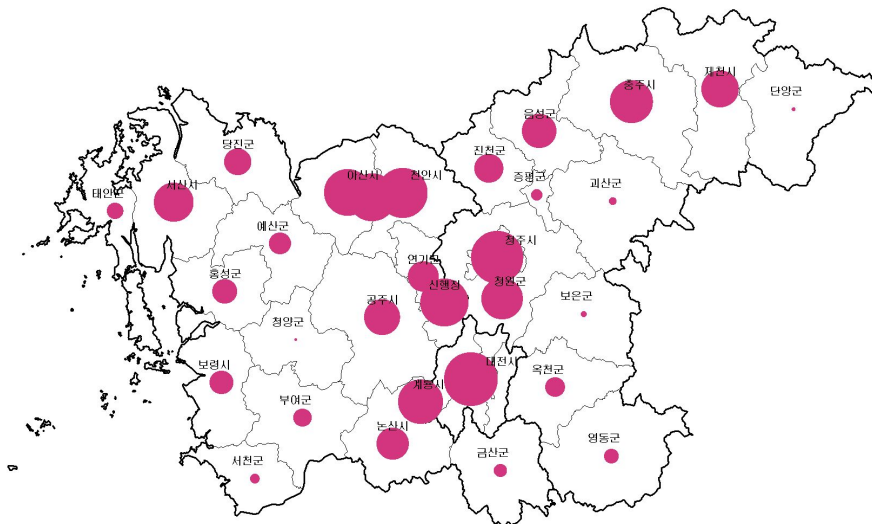
(2) 인구유입

2012년 이후 신행정수도로의 인구유입이 시작되는 초기에는 수도권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충남의 주변지역에서도 인구의 유출이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도시의 성장에 따라 근교화가 진행되어 주변지역의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서, 신행정수도의 건설 진행 중에는 주변지역의 개발을 억제하여 신행정수도 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이후 토지수요에 대응하여 개발가능지를 점차적으로 개발하여 나가야 한다.

신행정수도 주변지역의 인구는 2003년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의 인구는 약 144만 명으로 2030년 신행정수도 건설의 최종목표연도 인구(50만명)의 약 3배, 청주시와 천안시의 경우도 목표연도 신행정수도의 인구규모와 비슷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건설의 초기단계에서는 대전, 청주, 천안이 신행정수도의 배후도시 역할을 하면서 일정 도시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공주의 경우는 인구 13만 명으로 신행정수도의 배후도시 역할을 수행하기는 다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7〉 2030년 충청권 인구분포 예측



〈표 12〉 지역별 인구변화 예상

(단위: 명)

시도	시군구	2007	2012	2020	2030
충북	대전	1,545,070	1,641,450	1,757,953	1,890,833
	청주시	671,333	722,288	802,106	921,747
	충주시	208,832	200,684	186,013	170,533
	제천시	138,337	130,599	117,661	104,105
	청원군	122,691	119,005	111,959	104,568
	보은군	34,736	28,941	21,349	14,712
	옥천군	54,022	47,993	39,231	30,738
	영동군	49,944	43,595	34,644	26,204
	진천군	63,378	63,529	62,997	62,839
	괴산군	36,287	30,432	22,686	15,840
	음성군	90,384	90,195	88,800	87,788
	단양군	31,693	26,339	19,350	13,267
	증평군	30,667	28,704	25,508	22,185
	충남				
충남	천안시	537,212	629,409	785,372	1,008,573
	공주시	126,059	115,950	98,236	77,754
	보령시	103,049	91,418	73,095	53,817
	아산시	213,835	230,528	251,792	273,774
	서산시	154,965	153,712	146,942	135,254
	논산시	128,286	115,364	94,271	71,321
	계룡시	43,380	64,929	118,587	150,000
	금산군	56,288	49,231	38,481	27,539
	연기군	82,508	78,651	70,555	59,980
	부여군	76,388	64,334	47,335	31,410
	서천군	59,464	49,201	35,190	22,538
	청양군	32,781	27,215	19,570	12,619
	홍성군	90,099	81,854	67,989	52,497
	예산군	87,455	76,098	58,992	41,785
	태안군	58,844	51,460	40,214	28,771
	당진군	113,989	106,797	93,188	76,527
신행정도시			75,000	300,000	500,000

주) 지역별 인구변화 예상은 통계청의 인구추이와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유입인구를 고려하여 시·군의 과거 10년간 연평균변화율을 적용하여 시군별 인구비율로 배분한 결과임.(단, 계룡시는 15만명을 한계로 함)

2000년 현재 충청권의 인구는 약 4,678천명으로 행정수도가 건설되지 않더라도 2020년까지 약 602천명이 증가한 5,280천명에 이르고, 2030년까지는 약 6천명 정도가 증가하여 5,286천명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충청권으로의 인구유입효과는 2030년까지 약 65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통계청이 추정하

는 2030년 충청권 인구전망 530만명의 12%이고, 2002년 현재의 충청권 인구 484만명에 대해서는 13%에 해당되어, 신행정수도 건설은 충청권 인구를 12% 이상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최근 20년간의 인구변화율을 기반으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비율법을 이용하여 2010~2030년 동안 충청권의 인구를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대전, 청주, 천안과 공주의 인구는 2000년 현재 2,503천명에서 2020년까지 789천명이 증가하여 3,292천명으로 증가하고, 2030년에는 3,424천명으로 예측되고, 4개 도시가 충청권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중이 2000년 약 54%에서 2020년 62%, 2030년 65%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외에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면 약 15만명이 수도권 및 기타지역에서 신행정수도 주변지역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되어 2030년 충청권의 총인구는 5,940천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3) 중심지체계 변화

기존의 대전, 청주, 천안, 공주에 신행정수도가 추가됨으로써 신행정수도권은 1대도시 3중도시, 1소도시의 공간구조로 개편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심도시별 성격과 기능분담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13〉 충청권의 중심지체계 변화

구 분	현재(2002년 인구)	미래(2020-2030년)
도시체계	1 대도시, 2 중도시	1 대도시, 3 중도시
대도시	대전 142만	대전(176만 : 2020년)
중도시	천안 44만 청주 60만	천안 50만(2020년) 청주 68만 (2020년) 신행정수도 50만+ ∞ (2030년)

자료 : 각 시의 도시기본계획

2002년 현재의 충청권 전체 인구는 약 484만 명 수준으로, 행정수도가 건설되지 않더라도 2020년이 되면 약 44만 명이 증가한 52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20-2030년간

지는 인구성장이 미미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충청권 인구 중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천안, 청주, 대전시의 인구가 246만 명으로 충청권 전체인구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증가하는 인구의 상당부분을 이들 3개 도시에서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면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에서 약 65만 명의 인구가 새로 유입하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2030년의 충청권 전체인구는 약 594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면서 현재 대전, 청주, 천안시를 중심으로 한 1 대도시, 2 중도시의 충청권의 중심지체계는 계획 인구 50만의 신행정수도가 추가됨으로써 1 대도시, 3 중도시의 공간구조로 재편될 것이다. 이에 따라 중심도시별 성격과 기능분담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권내에서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로 인해 기존도시와 군 지역의 일부인구가 신행정수도로 이동하는 상황도 예측할 수 있다. 즉, 신행정수도 건설의 초기에는 수도권에서 이주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충청권의 가장 큰 도시인 대전시에 생활근거지를 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전시의 급격한 성장을 유발하며 충청권내 다른 도시와의 인구 및 경제력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더라도 충청권이 수도권과는 다른 하나의 독자적 경제권으로 성장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첫째, 충청권에는 서울시와 같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도시가 없다는 것이다. 충청권의 중심도시라고 할 수 있는 대전시는 독자적인 국제화를 실현할 수 있는 행정관리, 업무기능이 취약한 실정인데, 특히 국제교류, 대기업본사 등의 업무기능이 미비한 실정이다.

둘째, 충청권에 있는 중심도시들은 주변지역에 대한 중심지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을 뿐, 현재까지 광역적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도시별 기능 및 산업전문화, 도시 간 기능연계, 도시기반시설의 공유는 미흡한 실정이다.

셋째, 신행정수도의 경우 50만 명을 수용하는 도시로 건설될 예정이므로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제약요건이 될 것이다. 현재 수립된 도 단위의 종합계획과 대전도시기본계획 등은 충청권전체가 아니라 개별 시·도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서 충청권전체의 발전계획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 지역경제의 변화 전망

국제 분업구조가 한·미·일 중심에서 한·중·일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동북아 경제권의 교류거점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증대될 전망으로, 중국 황해연안의 성장과 함께 동북아 경제권이 급부상('99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액이 매년 40%이상 신장 추세)하고 있기 때문에 충남은 환황해권 요충지에 위치한 절절지역이자,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잇점을 최대한 살려나가야 한다.

참여정부 들어 신행정수도 건설, 국가균형발전정책 및 지방분권화 추진에 따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행정·문화의 중심으로 충청권(특히, 충남)이 부각되고 있는데, 신행정수도 건설이 가시화됨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행정의 새로운 중심지인 동시에 동북아시아 경제·문화의 중심축으로 급부상할 것이다.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충남 동북부지역(천안·아산 일대)이 수도권지역과 기능적으로 통합되는 시·공간적 수렴이 발생하여 수도권의 광역화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충남은 도내 34개 대학 입지(교수 3,890명, 대학생 144,473명, 대학원생 10,325명)해 있고, 천안 TG 반경 10km이내 12개 대학 10만 명 재학, 국내 최대 대학촌 형성(실업계, 전문대학,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등 년 2만5천명 산업인력 배출), 도내 총 92개 산업단지에 986업체(종업원 4만4천명)가 입주해 있고, 디스플레이,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대기업의 투자 및 기업 유치 및 충남테크노파크, 5개 지역협력센터(RRC), 8개의 기술혁신센터(TIC), 14개 기관 산·학 컨소시엄, 19개 창업보육센터 등 지역혁신역량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인근에 대덕연구단지(연구구소 74, 연구원 1만6천명)입지로 첨단 신기술 이전 및 보급 여건의 양호 등 산업, 대학, 연구인력, 기업지원 기관 등 지역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우위 창출이 유리하다.

〈표 14〉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중부권의 지역총생산 변화

지역 \ 년도	2007-2010	2011-2020	2021-2030	2007-2030
지역생산액(조원)	2.11	47.41	103.275	152.79
성장률(%)	0.66	4.69	7.18	5.52

자료: 신행정수도연구단, 행정수도 이전의 효과분석 및 국내외 사례조사, 2003.

지역총생산의 변화는 신행정수도건설로 사업비가 투자되면 대략적으로 중부권(강원권을 포함)의 지역총생산은 2007~2010년은 2조원, 2011~2020년 47조원, 2021~2030년은 103조원으로 2007~2030년의 전체기간으로는 153조원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를 지역생산액 성장률로 환산하면 2007~2030년의 전 기간에 걸쳐 5.52% 늘어나는 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동산 가격에 관한 한 신행정수도 건설로 충청권의 토지가격은 8.5%, 주택가격은 5.7% 상승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가장 분명한 효과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장소의 발전”이다. 국가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와는 달리, 신도시개발을 위한 건설투자는 직접적으로 충청권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게 될 것이다.

한국은행은 30조원의 건설부문 투자로 약 2조원의 생산유발과 2만5천명 정도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김의준은 37조원 규모의 신도시 개발투자가 약15조원(추가적 생산유발 약 3.5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또한 신행정수도 건설과정에서 시나리오에 따라 충청권에 8.3만~26.8만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되는 반면 수도권은 6.4만~20.5만명의 고용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건설효과를 지역내에 최대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건설부문의 산업간 연계를 강화시키고 또 공급능력을 적정수준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15〉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자	건설비용	경제적 파급효과		비 고
		전국차원	충청권	
김의준 (2003. 7)	37조원 투 입	생산유발: 47~48조 (수도권 15조원, 영·호남 17조원) GRDP 성장률 : 연평균 0.41~0.42%	생산유발: 15조 (순유발은 3.4조원) GRDP 성장률 : 연평균 0.82~0.86%	2007~ 2020 기간중
전명진 (2003. 7)		수도권 고용감소 : 6.4~20.5만명	고용유발: 8.3~ 26.8만명	
한국은행 (2003. 5)	30조원 투 입		생산유발: 2조원 고용유발: 2.5만명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주변지역과의 인프라시설의 확대구축을 통해 충청권 도시간의 연계성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며, 인프라시설의 확대구축은 산업의 생산성 증대와 비용구조의 개선을 통해 충청권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수도권과 기타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으로 다양한 노동인력의 확보가 보다 용이해지고, 다양한 기능의 집적으로 집적의 이익(Agglomeration Economy)이 발생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신행정수도에 인접한 대도시에서 기대되는 효과이며, 신행정수도 주변의 중소도시들은 각종 인력과 자본, 기능의 유출가능성이 커 지역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도 있다.

충청권은 신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이 강화되어 국내외적으로 이미지 홍보를 통한 “장소 판촉”의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3. 부정적 효과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부정적 효과로는

첫째, 부정적인 파급효과중 가장 중요하고, 지금 당장 현실화되고 있는 문제는 바로 부동산 가격 상승과 부동산투기 문제로 부동산가격은 미래 전망에 의해 변하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역 주변에는 토지·주택에 대한 수요가 몰리게 되고 결국 시장논리에 따라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단순한 가격상승에 그치지 않고 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와 인근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투기장화 되고 있는 점으로 가격상승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가격급등과 투기 수요에 따른 대책들이 사전에 준비되어야 한다.

부동산가격의 급등은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부담과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둘째,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으로 인한 외부인구의 유입은 행정수도의 입지와 도시규모 여

하에 따라 지역간에도 상이한 유형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대전시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신행정수도에 대한 배후도시 기능의 수행으로 유입인구의 증가와 난개발, 기반시설 부담비용의 증가, 과밀로 인한 생활환경의 악화가 우려되는 반면, 소규모 도시의 경우 인구와 자본, 노동력의 신행정수도로의 유출로 도시기능의 약화 현상이 예견된다.

따라서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함께 주변지역의 계획적 정비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기존 도시지역과 읍·면지역을 포괄하는 광역차원의 도시성장관리방안이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은 구체적인 입지에 따라, 그리고 충청권내 지역·도시들의 규모와 위상에 따라, 주민들의 경제여건과 능력에 따라 상이한 방향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셋째, 대전시나 청주시와 같은 대도시는 행정수도의 이전과정에서 충청권으로 유입되는 인구와 산업의 일부를 흡수하게 됨으로써 지역의 경제적 규모가 확대되고 도시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반면, 신행정수도에 인접한 중소규모 도시는 인구와 산업, 토착자본 등의 유출과 같은 역류효과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도시구조의 변화가 예상된다.

넷째, 도시·지역내에서도 토지나 주택과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저소득계층들은 부동산가격과 임대료의 상승으로 생활여건이 더욱 악화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는 무관하게 박탈감과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와 같은 파급효과의 지역간·계층간의 격차는 신행정수도의 구체적인 입지가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충청권 내부의 갈등과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이 요청되고 있다.

4. 사회·문화적 변화

1) 사회적 측면

수도의 이전은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포함하는 국가의 총체적인 권력과 사회구조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나, 현재 계획되고 있는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은 정치권력의 이전을 포함하는 “천도”의 개념보다는 분권화된 중앙행정기능을 이전하는 “행정수도” 이전의 개념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정치적,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

화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회적 변화는, 경제적·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계층이 다양한 지역에서 유입됨으로써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사회적 연결망이 파괴될 것이라는 우려감과,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도시 저소득계층들의 주거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즉, 충청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할 경우 서울의 고급전문인력들이 대거 충청권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의 고유문화가 변하게 되고, 지역내 일 자리를 빼앗길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상당수의 무주택 주민들은 행정수도가 이전되면 주택임대료의 상승으로 외곽지역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밝히고 있다(강병주, 2003).

따라서 충청권지역의 자치단체들은 지역내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주거안정과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상대적인 소외감을 해소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2) 문화적 측면

문화적 측면에서는, 신행정수도의 입지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으로부터 유입되어 새로운 도시문화를 형성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의 지역 전통문화와의 부조화 또는 단절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외국의 수도건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신행정수도는 수도로서 갖추어야 할 상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나머지 기념비적인 공공건축물 위주로 건설이 이루어짐으로써 실제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 생활하기 불편하고 사회적 교류가 제한되는 무미건조한 공간으로 건설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도 기능을 서울로부터 이전하여 서울이 '거대'하지만 '하나의 지방'이 되면, 지금까지 '큰 중앙', '작은 지방'이라고 하는 국가와 지방의 힘 관계가 바뀌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 효과로써 서울 중심의 서열 의식이 무너져 정책 입안의 관점도 지역 생활자 우선적으로 변화하여 전국 각 지역의 자립성의 제고가 기대된다.

또한,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하여 지방 분권과 지방 혁신을 주장하고 있는데,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중앙에 집중된 권력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방분권이라는

발전적인 구조를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획기적 지방분권과 지방혁신이 결여된 채 신행정수도가 건설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신행정수도가 또 다른 집중을 부를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대안으로 지방분권과 지방혁신을 위한 이른바 삼분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삼분정책이란 먼저 지방을 육성하고 차후에 수도권을 자율화하여 동북아 중심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분산·분권·분업전략을 의미하며, 이것의 구체적 실체는 중추기능의 이전, 지역균형화 정책의 추진, 수도권 기능의 변환 등이 포함되고 있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지역의 발전과 더불어 생활의 패턴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특히, 문화 관광의 여건변화와 영향은 지역내부와 주변지역의 두 가지로 예상된다.

5.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 따른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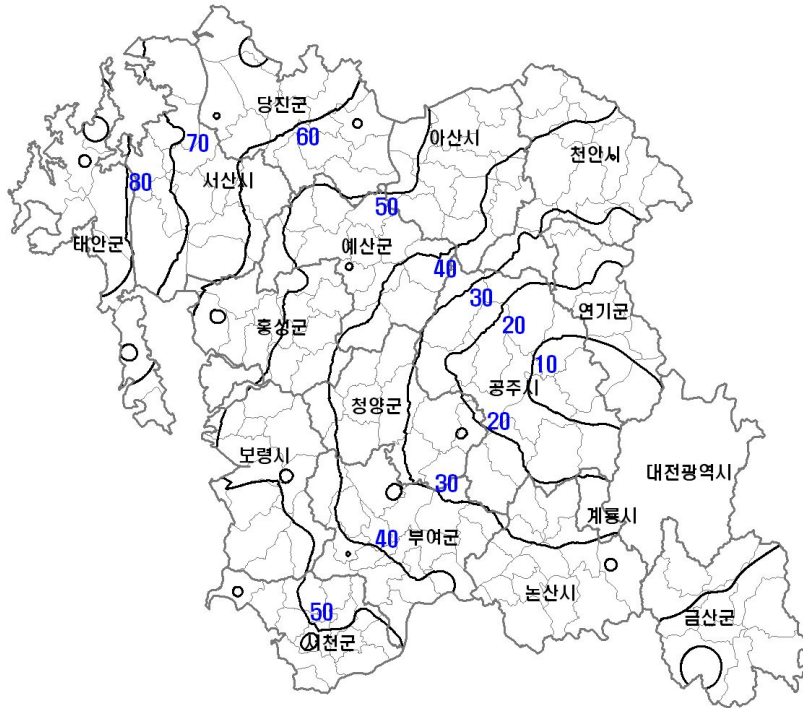
1)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접근성 강화

충청남도에는 동측에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이를 연결하는 천안-논산 간고속도로가 건설되었으며, 서측으로 서해안고속도로가 건설되어 남북으로의 이동이 원활해질 것이다.

현재, 충남을 대각선으로 대전-당진간고속도로, 공주-서천간고속도로가 건설 중에 있으며, 추가로 북측에 당진-천안간고속도로, 중앙에 보령-공주-상주간고속도로가 건설될 예정이고,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는 고속도로와 나란히 지나가고 있으며, 장항선은 천안에서 시작하여 서해선과 나란하게 장항까지 연결되게 된다.

신행정수도와의 접근성 향상으로 신행정수도의 도시서비스 기능을 공유할 수 있으며, 동서간 통행이 원활해지면, 충남의 지역간 통행시간이 4시간대(태안-금산)에서 2시간대로 단축되어 지역간 이동 및 통행패턴이 더욱 확대될 수 있고, 상호보완적인 관계 즉, 지역간 협력체계가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림 18〉 신행정수도로부터 시간거리(단위 : 분)



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서해안고속도로 주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개발이 추진중이며, 건설 중인 충청남도의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고속도로 IC주변(10km 직접영향권)에서부터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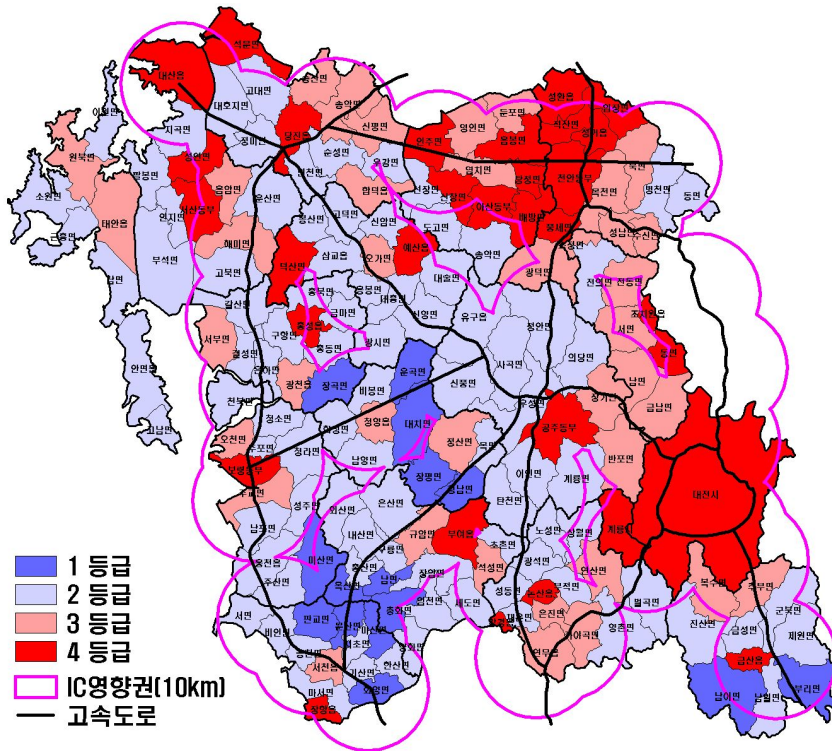
충남의 고속도로는 공주를 중심으로 방사환상형을 이루고 있고, 그 영향권인 10km를 버퍼링하여 보면, 서산-태안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내륙지역이 모두 직접영향권에 포함되어 양호한 접근성을 갖추게 될 것이다.

지역낙후도(개발촉진지구지정을 위한 기준 적용)를 분석하면 차령산맥을 중심으로 서남부지역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고속도로 건설이 전부 완료되면, 그동안 보존되어 있던 생태자원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태안 및 서산일부지역은 추가적인 도로공급이 없이는 타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

로 접근성이 열악하여지고 있어, 기존 고속도로의 연장이나, 일반국도 및 국지도의 지원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림 19〉 지역낙후도와 직접영향권(좌우10km이내)



제4장 합리적 지역구조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1. 신행정수도권의 도시네트워크체계 구축

1) 네트워크 도시체계 형성

앞에서 분석하였듯이 도시의 인구규모나 도시계층의 구조를 볼 때, 대전과 천안을 제외하면 유사한 규모의 도시로 형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은 종적 도시체계보다 횡적 도시체계인 네트워크형 도시체계의로의 전환이 보다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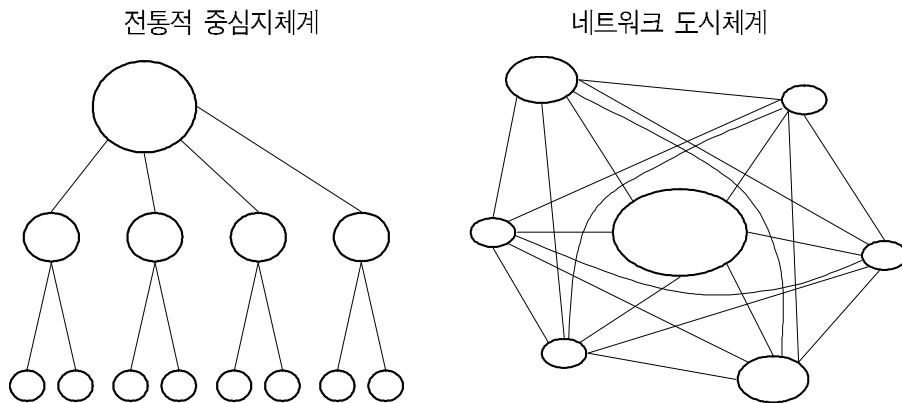
기존의 시급의 행정중심지와 군급 중 행정중심지의 규모가 큰 지역들간에 협력적 도시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의 거점도시와 종적인 도시체계를 갖춘다면 지금과 같은 편향된 지역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충청권은 수도권(서울)이나 영남권(대구, 부산)보다 중심대도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네트워크 도시체계(Network Urban System)를 형성하여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도시체계의 장점으로서는 다음과 같다.

- 도시네트워크는 전문화된 중심지들 사이의 수평적인 비계층관계로 형성
-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도시들 사이에 전문화, 보완관계, 공간분업 또는 시너지, 협력, 혁신에 입각한 외부경제가 발생

- 대도시 주변의 소도시들에게 새로운 경쟁력 부여
- 세계화시대에서의 도시의 입지 이점은 장소들간의 관계가 아닌 네트워크의 관계에 따라 달라짐 따라서 중요한 것은 결절성
- 개방적 역동성, 상호의존성의 증대, 중소도시의 발전 증대

〈그림 20〉 도시체계



네트워크 행위에 대한 개념은 산업경제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80년대 후반부터 도시경제학이론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네트워크이론에 의하면, 대도시는 일반적으로 고차원적인 기능수행에 필요한 시장규모와 인적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성장의 주체로 인식되어 왔으나 높은 에너지 사용량, 환경오염, 교통혼잡과 같은 집적의 불경제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중규모의 도시들이 미래의 성장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로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규모도시는 대도시에 비해 환경적 악영향이 낮고, 이동성이 높으며, 주민들에게 강한 소속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차원의 기능을 수용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고차원의 기능은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필요한 인적자원의 공급측면에서 일정규모이상의 시장을 필요로 하며 강한 중심성과 세계통신네트워크와의 편리한 접근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중규모 도시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중규모도시가 가지는 규모와 중심성의 취약이라

는 본질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도시와 주변지역 및 인접한 유사규모의 도시와 상호연결성을 강화하는 도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네트워크이론의 현실적용 가능성은 해외의 성공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네덜란드 서부지역에 위치한 인구 710만 규모의 란트슈타트(Randstad) 대도시권은 암스테르담(Amsterdam), 헤이그(Hague), 로테르담(Rotterdam) 등의 연담화된 도시와 주변의 작은 도시를 네트워크화 시킴으로써 유럽의 물류중심거점으로 성장하였다.

일본의 간사이 지방은 오사카, 고베, 교토 등의 대도시와 인근의 히메지, 나라, 오추, 와카야마 등을 연결하는 도시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동경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경제권을 갖추게 되었다.

인구 34만 규모의 스위스 취리히(Zurich)는 인근에 있는 북부도시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외국기업, 은행, 보험회사 등 전문기능을 유치함으로써 뉴욕이나 동경처럼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다.

2) 충청권 전역을 세계도시지역(Global City Region)화

신행정수도의 건설로 장기적으로 충청권이 세계화시대의 경쟁력 있는 하나의 세계도시지역(Global City Region)으로서 자립적 경제권역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충청권에 고차원적인 도시기능(국가 정치, 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진 신행정수도가 건설되고, 기존의 중심도시들이 특성화하여, 이들이 주변의 소도시지역과 연계되어 전체적인 도시네트워크 속에서 통합되어질 경우 수도권과 같은 독자적인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충남, 충북, 대전의 각 도시 및 지역간 기능적 보완성에 기초하여 네트워크형 공간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지역혁신체계의 임계규모(critical mass)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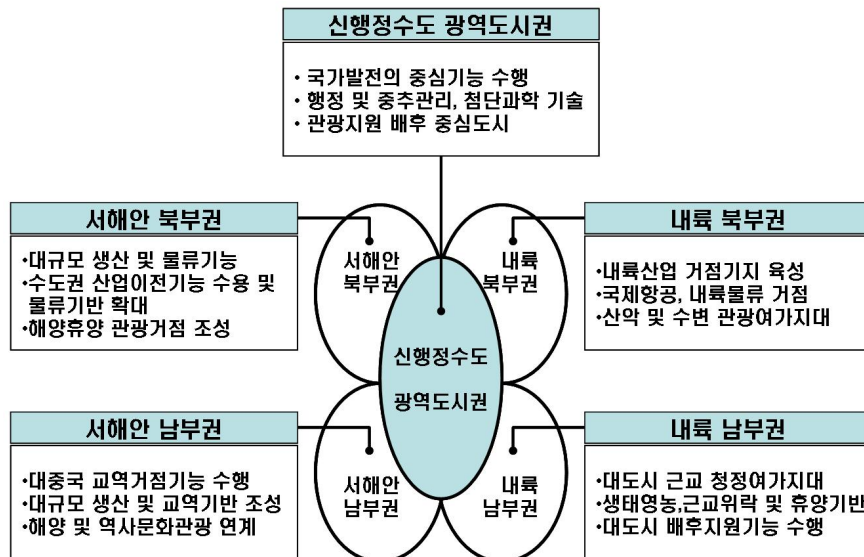
이러한 공간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수도권과 구별되는 자율적인 경제권역이 가능하고, 지역적·국가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

충청권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호남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과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동북아 경제권의 성장 동력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세계 대도시와 경쟁·협력할 수 있는

동북아 경제권 교류·협력의 Hub로서의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속적인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그림 21〉 충청권 공간개발의 구도



3) 광역도시권 중심도시간 연계와 기능분담

신행정수도의 입지가 결정된 뒤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충청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충청권내 중심도시간 기능 및 시설분담, 소도시와 군지역의 인구감소와 기능정체 해소전략 마련하여야 한다.

신행정수도권내 도시네트워크를 위해서는 우선 중심도시간 기능전문화 전략이 추진되어야 함. 기존 중심도시들의 산업별 특성과 미래의 전략산업을 감안하여 신행정수도의 특화기능을 선정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도시들간에 경쟁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은 수도권으로부터 분산되는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고, 수도권으로 진

입하고자 하는 인구와 산업을 부분적으로 유치하는 데 유리하다.

충청권에는 대전광역시권, 청주광역시권, 아산만광역시권(천안·아산) 등의 광역권이 각각의 광역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고 있는데,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신행정수도광역권을 형성하게 될 것이며, 이들 광역권간의 거리는 10~20km내외로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 상호 경쟁적이며, 보완적인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천안·아산은 현재 충청권 북부지역의 산업·교육중심지로서 수도권과 대전권을 연결하는 서해안 배후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충청권 도시와의 연계기능을 보다 강화토록 하여야 할 것이고, 영상·반도체·정보통신업종을 적극 육성하여 산업구조를 첨단화·다원화시켜야 할 것이다.

충북도청 소재지인 청주는 충북의 교육·역사·문화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전통산업에 의존하여 특화된 주력산업이 없었고, 충청권 중심도시와의 연계관계도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중부권 유일의 국제공항이 개통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청주산업공단의 전기·전자·통신관련 IT산업, 오창과학산업단지는 보건·의료·제약 등 BT산업 등으로 첨단산업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나, 앞으로 대전시·천안시의 첨단산업분야와 경쟁관계를 유발하기 보다는 향후 충청권의 물류 및 국제업무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전은 현재 수도권과 영·호남권을 연결하는 충청권 중심도시로서 상당한 인구와 산업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청단위의 국가행정기관(둔산의 제3청사), 과학기술·연구(대덕연구단지), 국방(계룡대)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 컨벤션 기능과 멀티미디어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래에도 충청권의 중심도시로서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대전은 첨단제품의 상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업 및 금융시스템의 적극적 유치 및 육성이 필요하다.

신행정수도 자체도 인구 50만의 도시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정치·행정기능이외의 산업기능이 추가로 도입하여 도시의 자족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행정수도에는 정부정책결정에 필요한 경제·사회부문 출연연구소, 민간기업에 대한 투자자문, 행정지원을 위한 기관, 첨단업종으로는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업종 등의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2. 서해안권의 지역거점 개발

1) 서해안 단일거점도시 육성

도시규모 및 지역간 통행패턴 등 상호작용을 살펴본 바와 같이, 북부지역의 산업중심의 성장지역과 경부선 및 경부고속도로 등 교통의 결절지역인 동부지역에 대비되는 지역이 바로 서해안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서해안권이다.

이들지역은 北部지역, 東部지역에 비해 상호연계체계가 미흡하고, 고속도로가 건설되었지만, 그간 많은 쇠퇴를 지속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급속한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지역이며, 해안과 연접하여 있어 여러 행위규제를 받고 있으며, 현재 남북축에 비해 동서축의 교통여건이 개선되지 못하여 지역의 흡입력이 낮은 것인 실정이다.

따라서, 신행정수도권에 대한 대응거점(Counter Magnet)으로서 성장거점도시 육성하여야 한다.

신행정수도가 건설될 경우 충남의 東部지역(경부축)과 西部지역간 불균형 심화될 것이다. 東部지역에는 신행정수도와 대전권, 천안·아산권, 청주권의 복합적 광역도시권을 중심으로 발전거점이 형성되는데 비하여, 내륙·서해안권에는 인구 13만 이하의 소규모 도시들이 정립적으로 분포하여 거점도시가 결여될 것이므로, 東部지역에 대한 대응거점으로서 서해안권에 성장거점도시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추진방안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신행정수도」 입지 결정 이후 지역발전을 선도할 적지 선정이다.

둘째, 광역적 행정·교육·문화 기능을 수행하는 친환경적 복합 자족도시를 계획적으로 건설이다.

주요 추진과제로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신행정수도의 건설 단계보다 앞서서 서해안 성장거점도시 건설을 추진하여 지역적 불균형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둘째, 주변 도시와의 연계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서해안 거점도시권 육성

(1) 서해안지역의 여건

기존 및 신규의 전문화된 중소규모 집적지들(도시,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항만 등)이 교통·정보망으로 긴밀히 복합·연계된 거점도시권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 서해안지역의 여건상 단일의 대규모거점을 조성하는 방식보다 그 실현성, 개발 소요기간, 인접시·도에 대한 선발이익 확보 등의 면에서 유리하다.

국제교류와 산업집적 활성화를 촉진이 필요한 지역이다. 기존도시 특화·전문화와 신시가지 개발, 산업·물류·유통거점을 조성하고, 항만배후 및 서해안, 대전·당진 등 고속도로 IC 연결부(활성화거점)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집적지간 연계 네트워크 구축

거점(도시와 각종 집적지)들을 상호 연결하는 교통망체계와 통합적인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점간 공동이용, 종합이용, 상호이용 등 다양한 방식의 광역시설 공동이용체계를 구축하며, 도·시·군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림 22〉 집적지간 연계네트워크 구축 예시도



3) 공공기관 유치와 혁신도시 건설

유입인구의 초과분이 정주하고 각종 기능이 입지하게 될 신행정수도 주변의 도시 및 농촌지역은 신행정수도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으나, 신행정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충남의 내륙 및 西部지역은 파급효과가 작거나 오히려 역류효과가 클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청권 전체를 혁신도시 구축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충청권 외곽지역은 이중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어 지역의 자립발전에 타격을 입게 된다.

정부는 신행정수도와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도시의 구축을 예정하고 있으나, 네트워크도시가 효과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도시들 간의 현격한 규모 및 경제력 차이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원거리 충청지역의 낙후는 신행정수도의 장기적 발전에 있어서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인근도시 및 주변지역을 제외한 충청권 지역은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을 포함해, 혁신도시의 구축 대상에 포함하고 개발을 촉진시킬 필요성이 있다.

3. 내륙권의 역사·문화·관광 거점 및 벨트 구축

1) 농촌지역 활성화와 혁신의 거점으로서 소도읍 육성

(1) 여건 변화와 충남 소도읍의 새로운 가능성

농어업 생산력 쇠퇴, 농어촌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심화로 농어촌의 구매력 감소, 농어촌의 산업입지 잠재력·혁신역량이 저하되고 있다.

고속교통화·정보화에 의한 접근성의 비약적 향상에 의해 소도읍의 산업입지 잠재력이 증대하고, 소도읍을 포함한 도시 지향적 기업의 입지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민의 전원 지향성 증대, 都·農交流 증가, U-turn 현상 증가, 노년 인구의 소도읍에 대한 정주 선택 증가, 실버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2) 육성방향

충남의 소도읍은 개발거점화, 산업기지화, 전원도시화, 지역중심화를 피하여, 새로운 도시성장의 활력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면 그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발거점화 : 농어촌 낙후지역의 개발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육성
- 산업기지화 : 산업경쟁력을 갖춘 생산기지로 발전
- 전원도시화 :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창출
- 지역중심화 : 수준 높은 문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지 기능의 강화

(3) 소도읍 육성 분야별 시책 추진방안

소도읍 육성의 시책 추진을 위해서 첫째, 소도읍 활성화를 촉진하는 지역산업을 진흥해야한다. 이는 전문기업 중심의 신산업체제에 대응한 산업공간의 정비와 기업의 유치가 필요하며, 시가지 확장을 중심으로 한 도시 교외형 복합적 산업단지의 개발을 추진하고, 지역특화산업(지장산업, 향토산업)을 전략적 육성하며, 지역 상업·서비스업의 현대화와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의 자원특성 및 여건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사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둘째,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다. 시급도시 수준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편리한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지역산업을 경쟁력을 지원할 수 있는 산업인프라를 구축하며,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기존 시가지의 확장을 추진하고, 소도읍 여건에 적합한 정비수법의 발굴과 이를 주민참여와 함께 실현가능한 방법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셋째, 매력적인 정주환경 및 지역복지 실현이다. 소도읍에 적합한 주거환경 개선 및 커뮤니티시설의 확충을 위해 심미적 만족과 지적 흥분을 느낄 수 있는 시공권의 창조가 필요하고, 생산연령인구의 소도읍 정착을 도모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환경을 구축하고, 교육환경의 개선을 통한 청소년 및 장년인구의 정착을 지원하며, 노인복지의 확충을 통한 노령인구의 유치와 실버산업의 활성화이다.

넷째, 역사·문화·경관의 보존·활용과 장소 마케팅 전개이다. 소도읍의 역사·문화·경관의 보존·활용으로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소도읍의 다양한 자원을 결합하여 이미지 향상과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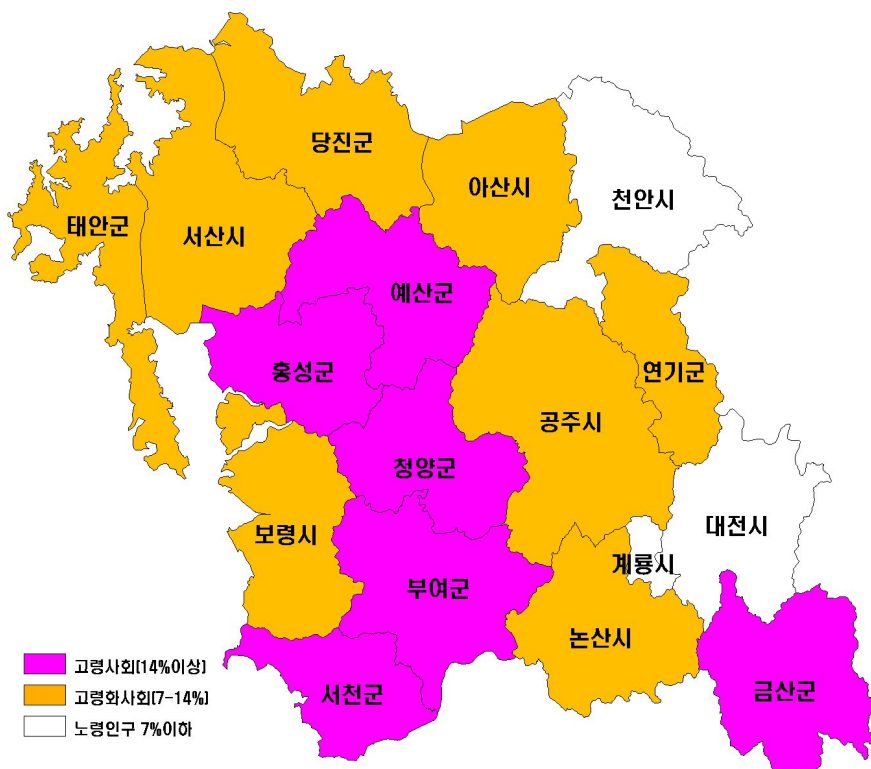
2)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실버산업의 전략적 육성

(1) 필요성과 잠재력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9년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충남은 1992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여 2002에는 고령화율이 12.8%였고, 2005년에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일부 시·군은 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신행정수도 입지로 환상형 도로체계 구축, 전국에서 2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도내 및 신행정수도 퇴직자 증가 등에 대비한 실버산업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

〈그림 23〉 시·군별 고령화비율 현황



(2) 기본방향

- 노인 소득 보장, 고용과 사회참여를 통한 활력있는 노후생활
- 건강보장과 사회적 보호시책을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
- 실버타운의 활성화와 교육여가활동의 확대를 통한 풍요로운 노후생활

(3) 주요시책

첫째, 노인 소득 보장, 고용과 사회참여를 통한 활력 있는 노후생활

- 도시 고령 인구와 농촌 공동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실버농업' 도입
- 도시 고령인구를 쾌적한 농촌 테마마을로 유치, 능력에 맞는 영농방식을 부여
- '소득 추구형', '관광 농업형', '여가 활용형'으로 개발
- 지역 시니어 클럽의 활성화
- 전직 공무원, 기업체의 등의 퇴직자를 중심으로 한 클럽
- 클럽내에 전문상담팀(교육, 세무, 가정문제, 환경 등), 자원봉사팀(방법, 환경보호, 청소, 년 선도 등), 교육 및 사업자문팀(전화, 가정방문 등) 등을 설치하여 운영

둘째, 건강보장과 사회적 보호시책을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

- 시, 군 단위 노인건강증진센터 및 상담센터 운영
- 지역 노인에 부응하는 건강교육 및 건강증진 요법 등을 소개하며 활성화
- 지역내 독거노인, 정신적 고독, 외로움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 지역 복지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 전문장기요양체계(치매전문병원, 요양시설 등) 및 재가복지 기반구축
- 경로당을 활용한 사회적 보호시책 활성화와 지원체계구축 (시범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사회복지사, 보건소 및 후원단체와 연계, 가정봉사원 파견 등)

셋째, 실버타운의 활성화와 여가활동의 확대를 통한 풍요로운 노후생활

- 충청남도 실버종합복지타운 조성
- 실버종합복지타운 추진 기획단을 구성운영, 자치단체에서 건립부지 확보
- 노인종합복지관, 전문요양원, 전용주택, 전문병원, 야외부대시설 등 설치
- 문화예술, 생활체육 활성화와 관광기회 확대
- 노인이동복지관을 운영하여 영화, 예술공연을 제공하고 시군별 공설운동장 등 체육시

설을 활용한 가족단위 체육활동 활성화

-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효도관광을 지원하고 타 지역과 교환방문 프로그램 개발

3) 농수축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생산기반 확충

산업단지 조성 등 성장지역을 제외하고 충남지역의 대부분은 1차산업(농·수산·축산·임업)이 주요 산업으로 새로운 기능을 지역에 도입하기에는 그 기반이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이며, 타지역과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지역의 현실을 바탕으로 1차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생산에서 가공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집적시키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 할 수 있다.

(1) 농수축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정보화기반 및 생산지원 기능 확충

농산물 통합 쇼핑몰 확충, 전자상거래 등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디지털 유통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양한 농수축산물의 산지 처리·가공시설의 확충과 현대화 및 농수축산물유통센터 설치 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지역별 주요 농수축산물의 품질 고도화를 추진한다.

(2)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항만 및 고속도로 IC 인접지역에 생산·물류시설을 갖춘 농수축산업 지원 거점 조성

홍성 등에 농수축산업 지원 거점을 조성하고, 생산지에 가공·유통시설 확보 및 협동조합 유통기능 활성화를 통한 농수축산물 유통체계의 개선 및 수출기반을 확충하며, 건설되고 있거나 계획되어 있는 고속도로의 IC 인접지역을 적절히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

(3) 생활수준 향상과 고령화사회의 도래와 고기능성 식품 요구에 따른 바이오 식품 및 의약품 분야로 고부가가치화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 거리의 제약이 축소되고, 정보의 전달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환경과 건강을 위한 웰빙산업의 발달은 충남지역의 발전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따라서, 농수축산업을 첨단화하고 이를 활용한 기능성, 바이오, 친환경적 식품개발을 지원하며, 지역 내 대학의 식품공학과, 식품영양학과, 조리학과 및 원광대 한의학과와 연계하여 바이오농업부터 바이오식품, 바이오의약품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고 생산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산학연 연계체제를 구축한다.

4. 고속도로 및 역사 주변지역 개발

1) IC 연접부의 개발 잠재력

충남지역에는 남북축으로 경부·서해안·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가 건설되어 운행중이며, 동서축으로 당진-대전간·공주-서천간·공주-보령간·당진-천안간 고속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건설중에 있다. 이러한 고속도로의 IC 연접지역은 매우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충남의 고속도로가 전부 건설되면 대부분의 지역이 고속도로 영향권에 들어 교통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이지역을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IC 연접부가 산업·물류·유통의 거점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잠재력은 IC로부터 10km 이내의 범위에서 고속도로 개통효과가 집중되고, 제조업은 원재료나 제품수송의 유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IC주변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기초자재형보다는 가공조립형 업종이 주로 입지하는 경향이다. 고속도로 주변지역은 제조업 입지가 증가함에 따라, 그 종사자수가 증가하고, 서비스업의 입지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고속도로 IC 및 인접지역에 유통단지 특히, 화물터미널이 집중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업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만큼은 아니지만, 고속도로를 통한 신속한 유통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단지의 형성, 신선채소 및 화훼재배 등의 고부가가치 농어업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8년부터 고속도로 IC연접부를 “21세기 활력권 창조사업”의 거점(Smart IC)으로 지정하고, ①중심시가지의 활성화와 교외부 지역거점 형성, ②신산업 육성과 기존산업 활성화, ③생활기반과 산업기반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개발되고 있다.

2) 개발방향

고속도로와 농어촌·낙후지역 개발을 연계하기 위해 서해안고속도로와 향후 개통 예정인 고속도로 주변지역의 관광, 산업입지 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고속도로IC 연결부의 난개발 및 토지투기에 의한 지가상승 억제를 위한 토지이용 규제가 필요하고, 고속도로IC 연결부를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적정기능·시설을 도입하며, 환경친화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3) 추진방안

IC 연결부 토지이용 조사·분석 : 토지이용 실태, 토지소유, 지가, 용도지역 등 조사를 시행하고,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가용지 및 개발적지 분석을 실시한다. IC 연결부 일대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 법률」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의 복합단지 개발방식을 적용한다.

IC 연결부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 산업기능, 물류·유통기능, 위락기능, 주거기능 등의 복합단지로 개발, 중소기업 및 물류·유통기능을 조기 유치, IC 연결부의 활력을 석문국가산업단지 등 지정 임해산업단지의 활성화로 연계한다.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1) 인구와 도시체계

인구와 도시계층은 기존 경부축을 중심으로, 수도권 인접부의 산업입지에 따른 성장하여 'T자형' 도시체계 형성할 것이며, 신행정수도 및 고속교통망 건설에 따라 현재의 도시계층이 강화되고 지역간 격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균형개발을 위한 충남 전체의 밑그림이 필요하다.

(2) 지역 유형별 특성

기존 도시지역과 동북부지역 중심의 성장형(도시화) 지역과 서해안 주변의 어업 및 겸업지역, 평야지대의 농촌지역, 차령산맥 중심의 산촌지역으로 구분하며,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라 성장형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급성장 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교통망 건설은 낙후지역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고유의 자원인 자연생태환경을 토대로 차별화된 지역발전 모색이 필요하다.

(3) 지역간 상호작용

지역간 상호작용 측면에서는 대전중심 및 중도시(천안) 중심의 상호작용이 활발이 이루어지

고 있으며,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따라 신행정수도권이 형성되면, 권역내의 교통네트워크 확충 등 상호작용이 긴밀해 질 것이고, 천안중심의 북부권, 신행정수도 중심의 중부권, 대전중심의 남부지역으로 영향권이 확대될 것이며, 서해안지역은 상대적으로 약한 상호작용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 건설에 따라 동서방향의 상호작용이 수직 및 거미줄처럼 연결되는 네트워크형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각 지역별로 차별화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간 협력적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4) 분석의 종합

인구 및 도시계층, 지역유형, 지역간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충남지역은 산업발달에 의해 성장한 북부권(산업집적권), 경부축을 기반으로 성장한 동부권(경부축권), 서해안고속도로를 기반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서부권(서해안권)과 중심지역에 산악지형으로 개발에서 제외되어 왔던 내륙권(중산간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과 부의 경부축 중심의

2. 정책제언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신행정수도 건설 및 고속교통망 구축은 편중된 지역개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통해 발생하게 될 개발이익을 소외지역 및 낙후지역에 배분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 마련 필요하다.

여건변화에 대해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해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 및 고속교통망 구축은 지역의 구조를 크게 변화시키는 요인으로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신행정수도권의 도시네트워크체계 구축, 북부권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 서해안권의 지역거점 개발, 내륙권의 역사·문화·관광 거점 및 벨트 구축, 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 등과 같은 대응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한다.

지역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는바, 신행정수도 건설 및 고속교통망 구축은 한 지역, 한 시·군에 국한된 현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간 광역적으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에서는 충남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지역간 균형적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구조분석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구역에 의한 구분이 아닌 지역의 특성과 성격을 바탕으로 유사한 지역에 대한 통합적 개발방향을 모색하고, 지역특성별 상호보완적인 관계, 즉 상호 우위에 있는 기능을 바탕으로한 협력체계를 시·군단위뿐만 아니라 읍·면단위에서도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 소도읍지원, 혁신도시건설, 혁신지역, 농촌마을계획 등 시·군단위가 아닌 읍·면단위의 개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겨냥한 주변지역간 상호협력체계의 구축은 매우 절실하다고 보여진다.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한계점으로는

첫째, 분석방법의 한계이다. 본 연구는 지역구조의 효과적인 분석 또는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기존의 연구방법을 토대로 충남지역의 지역구조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가를 살피는데 주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 갖고 있는 방법론상의 한계점을 그대로 갖고 있다

둘째, 지역구조의 형성 및 변화 요인규명이 안된 점이다. 본 연구에서 지역구조의 변화를 살피고 향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 변화의 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셋째, 충남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의 부족이다. 연구에서 3가지 측면에서의 분석이 이루어졌는데도 각각의 분석으로 끝나고 있어, 지역유형과 지역간 상호작용 또는 지역의 도시계층 등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 지역구조를 형성하고 변화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부

족하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내용은 향후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그간 지역구조에 대해 거시적인 연구만이 진행되고 있으며, 충남지역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보다 현실을 미시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맞이하게 될 여건변화에 대한 기초적이거나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

참고문헌

국토지리정보원(2003), 한국지리지 - 충청권

이희연·송종홍(1995), “서울대도시권역의 설정과 지역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30(1), pp.35-56

서종국(1997), "광역도시권 도시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2(6), pp.67-90.

권용식(1998), 서울대도시권의 공간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논문

김 영·고석남(1998), "진주-광양권 광역개발과 파급효과", 경상대 『지역개발연구』 9, pp.65-96.

김정연(1999), 충남지역의 도시체계 분석, 충남발전연구원

김 영·하창현(2000), "광역권개발에서의 지역발전전략", 경상대 『지역개발연구』 11, pp.31-49.

이경기(2000), 수도권 지역의 구조 및 생활권 분석과 개편전략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곽철홍·이 전(1997), "경남 서부지역의 중심지 세력권 변화와 주민 통근형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3(1), 1997, pp.13-34.

서종국(1998), "도시공간구조변화와 통행행태의 변화관계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3(5), pp.167-182.

이외희(1999), “경기도 외부 통근·통학지 패턴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 제4호

구진권(2000), 광역도시권내 도시활동 및 토지이용, 경상대 석사논문

김창현·박양호·박인권(2003), 정주공간의 구조적 변화와 대응방향, 국토연구원

박범조·고석찬(1998), "지역불균형 발전의 결정요인", 『지역연구』 14(2), pp.35-50.

박시현 등(200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실천을 위한 농업·농촌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농촌경제연구원·국토연구원.

장우환(1997), 한국 중산간지역의 구분과 특성에 관한 실증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기환 등(1999), 농촌 인구 과소화지역의 유형별 특성과 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록 :

1. 2000년 시·군별 기능지수와 수행률 및 대전·충남 기능지수와 수행률

지역		시·군별		대전·충남	
		기능지수	수행률	기능지수	수행률
연기군	남면	425.59	7.47	12.63	0.18
	금남면	387.27	6.79	10.79	0.15
	전의면	332.87	5.84	10.54	0.15
	전동면	133.34	2.34	4.33	0.06
	소정면	207.80	3.65	7.75	0.11
부여군	부여읍	3267.37	60.51	173.78	2.41
	규암면	587.55	10.88	17.48	0.24
	은산면	155.27	2.88	5.84	0.08
	외산면	99.39	1.84	4.35	0.06
	내산면	47.97	0.89	2.44	0.03
	구룡면	88.06	1.63	3.89	0.05
	홍산면	277.78	5.14	9.13	0.13
	옥산면	45.93	0.85	2.25	0.03
	남면	66.80	1.24	3.76	0.05
	충화면	41.57	0.77	1.96	0.03
	양화면	76.16	1.41	2.98	0.04
	임천면	146.41	2.71	5.84	0.08
	장암면	76.67	1.42	3.71	0.05
	세도면	234.85	4.35	6.03	0.08
	석성면	126.35	2.34	3.83	0.05
서천군	초촌면	61.86	1.15	2.92	0.04
	장항읍	1568.50	28.01	44.81	0.62
	서천읍	2484.30	44.36	45.57	0.63
	마서면	187.12	3.34	4.44	0.06
	화양면	62.78	1.12	1.86	0.03
	기산면	51.43	0.92	1.64	0.02
	한산면	249.32	4.45	6.65	0.09
	마산면	53.25	0.95	1.88	0.03
	시초면	42.99	0.77	1.24	0.02
	문산면	51.57	0.92	1.74	0.02
	판교면	240.08	4.29	7.28	0.10
	종천면	101.48	1.81	2.84	0.04
	비인면	227.28	4.06	5.12	0.07
	서면	279.90	5.00	14.08	0.20
	청양군	청양읍	3733.83	69.14	46.75
운곡면		146.62	2.72	3.77	0.05
대치면		237.03	4.39	4.52	0.06
정산면		398.21	7.37	5.99	0.08
목면		121.70	2.25	2.47	0.03
청남면		124.47	2.31	2.77	0.04
장평면		181.79	3.37	3.65	0.05
남양면		177.45	3.29	4.38	0.06
화성면		165.70	3.07	4.30	0.06
비봉면		113.21	2.10	3.12	0.04

지역		시·군별		대전·충남	
		기능지수	수행률	기능지수	수행률
홍성군	홍성읍	4017.36	69.26	154.76	2.15
	광천읍	897.21	15.47	39.11	0.54
	홍북면	76.41	1.32	3.35	0.05
	금마면	192.14	3.31	9.24	0.13
	홍동면	75.78	1.31	3.56	0.05
	장곡면	80.82	1.39	3.38	0.05
	은하면	36.82	0.63	1.60	0.02
	결성면	65.70	1.13	2.78	0.04
	서부면	108.65	1.87	4.85	0.07
	갈산면	142.99	2.47	5.80	0.08
예산군	구항면	106.12	1.83	4.74	0.07
	예산읍	3422.18	64.57	94.29	1.31
	삼교읍	372.55	7.03	12.29	0.17
	대술면	70.29	1.33	2.90	0.04
	신양면	106.39	2.01	3.79	0.05
	광시면	92.24	1.74	3.13	0.04
	대흥면	50.89	0.96	2.09	0.03
	응봉면	116.62	2.20	3.89	0.05
	덕산면	390.84	7.37	11.22	0.16
	봉산면	48.91	0.92	2.08	0.03
태안군	고덕면	276.97	5.23	10.10	0.14
	신암면	85.06	1.60	3.84	0.05
	오가면	267.08	5.04	10.91	0.15
	태안읍	2780.03	54.51	56.99	0.79
	안면읍	511.18	10.02	13.92	0.19
	고남면	148.33	2.91	4.32	0.06
	남면	266.52	5.23	6.17	0.09
	근흥면	368.22	7.22	17.02	0.24
	소원면	302.96	5.94	10.07	0.14
	원북면	515.90	10.12	14.19	0.20
태안군	이원면	206.86	4.06	3.31	0.05
	당진읍	2554.62	44.82	83.75	1.16
	합덕읍	888.11	15.58	42.79	0.59
	고대면	98.44	1.73	4.01	0.06
	석문면	248.37	4.36	15.91	0.22
	대호지면	52.90	0.93	2.39	0.03
	정미면	183.76	3.22	4.52	0.06
	면천면	117.85	2.07	4.66	0.06
	순성면	219.91	3.86	21.84	0.30
	우강면	187.45	3.29	6.59	0.09
태안군	신평면	603.15	10.58	32.11	0.45
	송악면	424.36	7.44	15.33	0.21
	송산면	121.06	2.12	5.14	0.07
	대전시	-	-	3361.97	46.69

지역		시·군별		대전·충남	
		기능지수	수행률	기능지수	수행률
천안시	성환읍	464.35	6.93	57.30	0.80
	성거읍	274.31	4.09	31.32	0.43
	직산면	175.85	2.62	21.05	0.29
	임장면	104.49	1.56	12.07	0.17
	풍세면	57.28	0.85	5.86	0.08
	광덕면	53.84	0.80	6.53	0.09
	목천면	103.45	1.54	11.97	0.17
	북면	36.70	0.55	4.23	0.06
	성남면	40.29	0.60	4.71	0.07
	수신면	37.11	0.55	3.76	0.05
	병천면	102.08	1.52	11.76	0.16
	동면	20.72	0.31	2.20	0.03
	천안동부	5229.55	78.05	715.00	9.93
공주시	유구읍	458.53	7.91	15.28	0.21
	이인면	139.01	2.40	5.64	0.08
	탄천면	90.97	1.57	3.33	0.05
	계룡면	150.68	2.60	8.69	0.12
	반포면	249.33	4.30	7.33	0.10
	장기면	280.06	4.83	15.58	0.22
	의당면	84.24	1.45	4.38	0.06
	정안면	112.96	1.95	6.82	0.09
	우성면	185.85	3.20	7.40	0.10
	사곡면	102.08	1.76	4.05	0.06
	신평면	68.68	1.18	3.33	0.05
	공주동부	3877.61	66.86	177.39	2.46
보령시	웅천읍	353.13	5.99	19.02	0.26
	주포면	225.91	3.83	6.02	0.08
	주교면	197.60	3.35	14.41	0.20
	오천면	161.21	2.73	8.31	0.12
	천북면	77.56	1.31	3.11	0.04
	청소면	113.90	1.93	8.37	0.12
	청라면	74.53	1.26	3.04	0.04
	남포면	109.98	1.86	3.50	0.05
	주산면	188.33	3.19	16.06	0.22
	미산면	44.45	0.75	2.10	0.03
	성주면	67.27	1.14	2.92	0.04
	보령동부	4286.12	72.65	142.54	1.98
아산시	염치읍	116.65	1.91	6.45	0.09
	송악면	71.04	1.16	3.33	0.05
	배방면	399.87	6.56	25.40	0.35
	탕정면	97.13	1.59	9.46	0.13
	음봉면	115.36	1.89	5.18	0.07
	둔포면	366.21	6.00	17.00	0.24
	영인면	226.88	3.72	7.95	0.11
지역		시·군별		대전·충남	
		기능지수	수행률	기능지수	수행률
아산시	인주면	170.51	2.80	7.90	0.11
	선장면	111.19	1.82	9.57	0.13
	도고면	134.19	2.20	8.57	0.12
	신창면	141.57	2.32	11.43	0.16
	아산동부	4149.39	68.02	199.36	2.77
	대산읍	522.33	8.42	54.68	0.76
서산시	인지면	99.64	1.61	4.53	0.06
	부석면	130.15	2.10	7.81	0.11
	팔봉면	72.86	1.18	3.79	0.05
	지곡면	115.61	1.86	13.25	0.18
	성연면	160.35	2.59	9.79	0.14
	음암면	208.52	3.36	9.81	0.14
논산시	운산면	127.04	2.05	6.10	0.08
	해미면	534.64	8.62	21.34	0.30
	고북면	124.40	2.01	6.37	0.09
	서산동부	4104.45	66.20	205.99	2.86
금산군	강경읍	500.80	8.35	27.61	0.38
	연무읍	595.19	9.92	32.07	0.45
	성동면	85.34	1.42	5.64	0.08
	광석면	77.31	1.29	5.29	0.07
	노성면	49.51	0.83	3.47	0.05
	상월면	58.95	0.98	3.48	0.05
	부적면	100.93	1.68	5.51	0.08
	연산면	445.03	7.42	37.87	0.53
	벌곡면	56.30	0.94	3.85	0.05
	양촌면	96.96	1.62	5.49	0.08
	가야곡면	104.70	1.74	6.90	0.10
	은진면	245.80	4.10	24.99	0.35
	채운면	71.53	1.19	3.36	0.05
	논산동부	2925.90	48.76	124.15	1.72
연기군	계룡시	585.76	9.76	32.46	0.45
	금산읍	3300.91	66.02	61.46	0.85
	금성면	154.58	3.09	3.39	0.05
	제원면	232.56	4.65	3.79	0.05
	부리면	109.60	2.19	2.81	0.04
	군북면	99.00	1.98	2.72	0.04
	남일면	81.02	1.62	2.22	0.03
	남이면	50.45	1.01	1.39	0.02
	진산면	251.89	5.04	4.24	0.06
	복수면	223.80	4.48	4.88	0.07
연기군	추부면	496.18	9.92	10.40	0.14
	조치원읍	3673.54	64.45	98.74	1.37
	동면	306.99	5.39	6.34	0.09
연기군	서면	232.60	4.08	6.26	0.09

2. 충남지역 읍·면·동부별 인구변화

	3%이상		3%미만
	· 공주 : 계룡, 사곡, 신봉, 유구, 이인, 장기, 정안, 탄천 · 금산 : 군북, 금성, 남이, 남일, 복수, 부리, 제원, 진산 · 보령 : 남포, 미산, 성주, 오천, 웅천, 주교, 주산, 주포, 천북, 청라, 청소 · 홍성 : 갈산, 결성, 광천, 금마, 은하, 장곡, 홍동 · 천안 : 광덕, 동면, 성남, 수신, 풍세 · 논산 : 동부를 제외한 전지역 · 당진 : 면천, 순성, 우강, 정미, 합덕 · 아산 : 도고, 배방, 선장, 송악, 영인 · 예산 : 고덕, 광시, 대흥, 봉산, 삼교, 신양 · 부여 : 석성, 규암을 제외한 전지역		· 공주 : 우성 · 금산 : 추부 · 당진 : 대호지 · 부여 : 석성 · 서산 : 성연 · 운산 · 예산 : 대술 · 태안 : 고남 · 홍성 : 구항 · 서부, 홍북
중 소	3%미만		3%이상
	· 예산 : 예산, 덕산, 신암, 오가, 응봉 · 공주 : 반포, 의당 · 당진 : 동부, 석문, 송산, 고대, 송악, 신평 · 서산 : 동부, 고북, 음암, 인지, 해미 · 연기 : 조치원, 금남, 동면, 소정, 전의 · 천안 : 병천, 북면, 상거, 상환, 입장, 직산 · 아산 : 둔포, 신창, 염치, 음봉, 인주, 탕정		· 계룡 · 금산 : 금산 · 논산 : 보령 : 동부 · 부여 : 규암 · 청양 : 청양 · 태안 : 태안, 근흥, 안면, 원북 · 홍성 : 홍성
중 대			· 천안 : 목천 · 동부 · 아산 : 동부

3. 충남지역의 통근·통학 유출 통행량(2000년)

구분	도 차 지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천안	2,706	20	31	110	32	1361	32	6034	86	1,255	94	21	134	12	11	11,939
공주	116		11			2,519		143		231	52	12		9		3,093
보령	70			22		140		75	10	21	85			21		444
아산	777			41	10	235		1,591	48	189	32		29			2,952
서산	63			31		91		97		34	9					325
논산	51		10		42	2,145	19	50	17	66	1,749	10		11		4,170
금산	10					1,789		89	41	247	320		39	9		2,544
연기	113	9	13			1,916	22	179		2,383	10		10			4,655
부여	29					333					152					514
서천	31	9				98		11			1,511	21				1,681
청양	23	13				77		22		14	21		6			176
홍성	80					67		41		11	30					229
예산	44				10	89		118		34						295
태안	23			12		24		12			11	21				103
당진	87		11	20	24	67		244		11						464
계룡	12		11			2,281		36	12	26	13					2,391
계	4,235	51	87	236	118	13,232	73	8,742	214	4,522	4,089	85	218	62	11	35,975

4. 충남지역의 통근·통학 유입 통행량(2000년)

구분	출 발 지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충남지역	천안	17,017	31	62	1,435	39	2,420	21	19,234	30	1,856	180		39	10	42,374
	공주	698		10	164	22	6,069		897		417	102		23		8,402
	보령	195	10		62	32	207		239		104	134	11	20		1,014
	아산	3,107	10	21	601	10	375		5,750		165	43		22	22	10,126
	서산	1,002		21	507	19	301	22	1,065		112	10	11	32		3,102
	논산	536	10	20	178		7,974		219		199	938				10,074
	금산	268			49		6,017		220		221	229				7,004
	연기	1,497	11		115	10	3,094		856	11	4,420	64		12	11	10,101
	부여	145		9	60	10	1,341		144		21	65				1,795
	서천	123			31		314		140			1,883	20			2,511
	청양	30			10		358		77		29	20				524
	홍성	666		10	191		332		830		35			10		2,074
충남지역	예산	268		20	125		239		294			52				998
	태안	52			72	10	132		280			10				556
	당진	564	10		439		103		949	10	32	10	8	11		2,136
	계통	43			10		601		10							664
계	26,211	82	173	4,049	152	29,877	43	31,204	51	7,611	3,740	50	169	43	0	103,455

5. 충남지역 시·군간 통근·통학 통행량(2000년)

D \ O	계통	공주	금산	논산	당진	보령	부여	서산	서천	아산	연기	예산	천안	청양	태안	홍성
계통	10,419			63												
공주	69	64,938		454	23	30	412	59	10	266	701	92	612	332		40
금산	13	20	33,757	64			20	10		11	24					
논산	39	408	37	64,258		22	1209		20	11	39	21	87	15		10
당진	11	19		9	65,781	30		1,115		340		556	480		220	75
보령		51		27	11	54,065	165	10	157	53		99	72	120	11	248
부여	39	335		846		139	43,739	9	137	10	28	21	21	155		
서산		21			591	54		76,768		111		277	208	8	1,109	307
서천				58		116	225		33,411	10						18
아산		91		10	255	19	18	51		75,421	33	971	10,271	36	12	99
연기		377	20	11						98	36,163		643			
예산	23	157	8	10	162	45	10	65		816	27	51,763	583	106		564
천안		369	43	47	226	142	9	59	11	11,102	1329	657	18,6756	41	24	211
청양		483		29	11	429	232	11	22	31	13	217	51	23,365	11	180
태안	11	13		18	50	21	10	1,139		10		20	20		40,868	9
홍성		88	19	19	281	1270	21	652		228	25	1,040	350	171	63	49,624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조봉운 책임연구원 · 김정연 연구실장

총발언 2004-04 · 충청남도 지역구조 변화분석과 대응방안

글쓴이 · 조봉운 / 발행자 · 김용-웅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04년 10월 31일 / 발행 · 2004년 10월 31일

주소 · 대전시 유성구 상대동 138-42 (305-313)

전화 · 042-824-7921(도시 · 지역연구부) 042-824-7919(대표) / 팩스 · 042-824-7817

ISBN 89-89552-46-X 93300

<http://www.cdi.re.kr>

© 2004,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